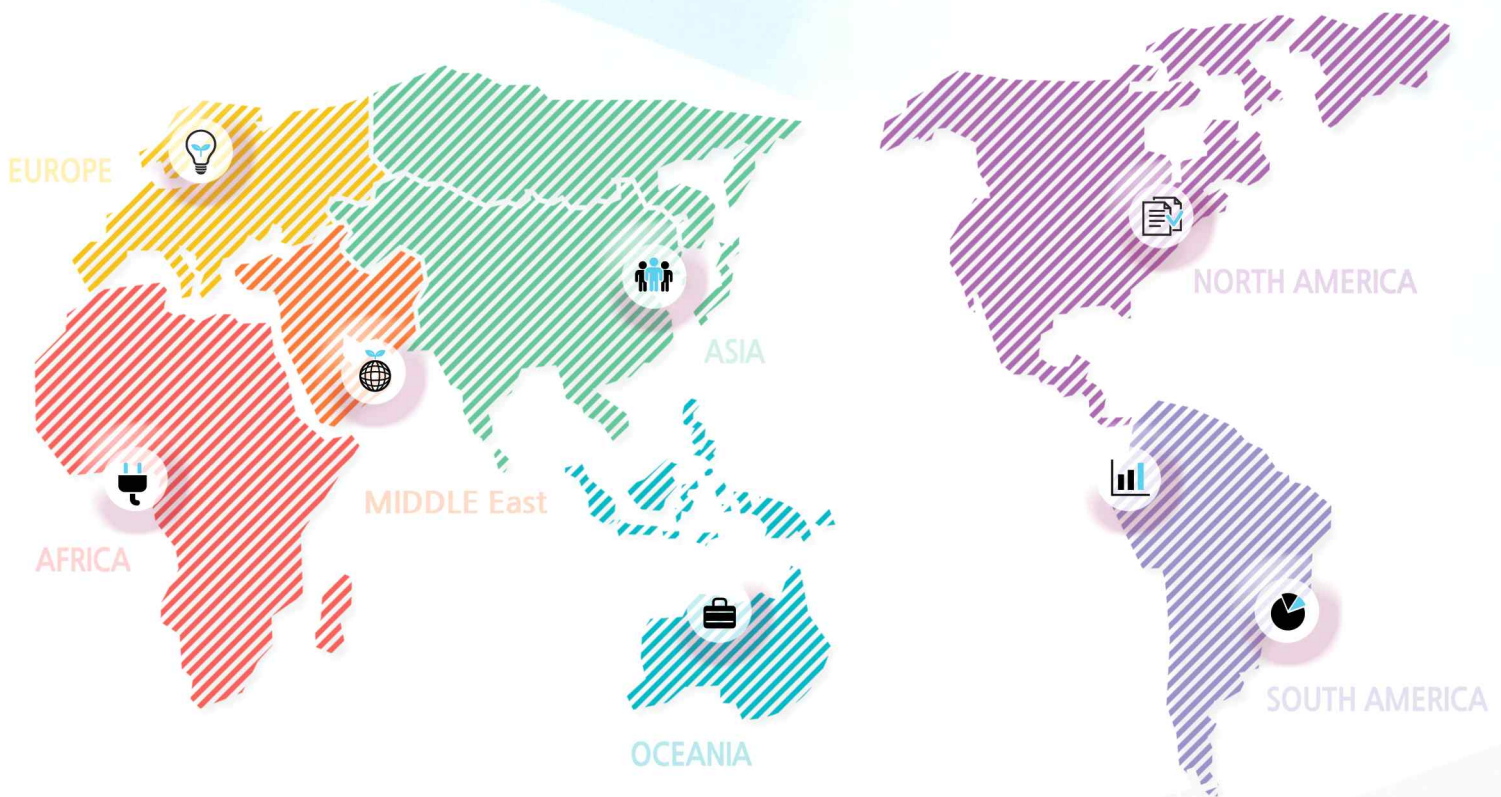




TPP 이후 한·일 對美 수출 전망

CONTENTS

S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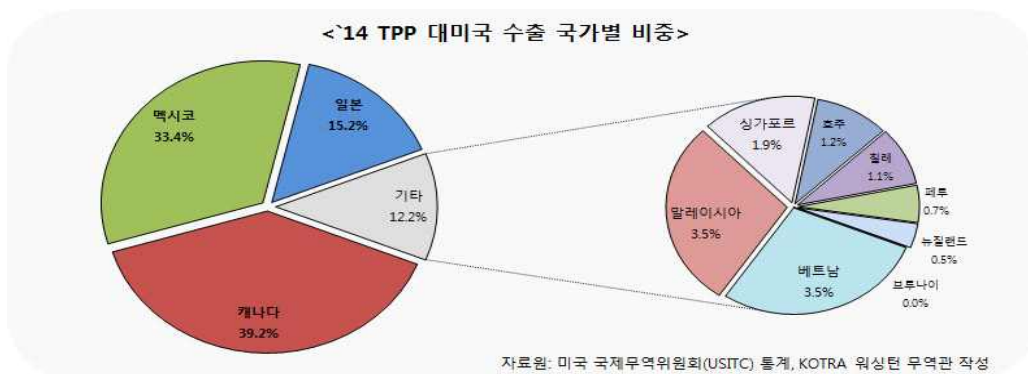
요 약

I . 미 · 일 TPP 현황	1
1 1. TPP와 미국 수입시장	
4 2. TPP와 일본	
II . 한 · 일 對美 수출 경쟁 분석	10
10 1. 한·일 對美 수출 경쟁 현황	
14 2. 한·일 對美 수출경합도 및 비교우위 분석	
III . 산업별 대응방안 및 시사점	21
21 1. 경쟁산업별 전망 및 대응방안	
37 2. 시사점	

□ 미·일 TPP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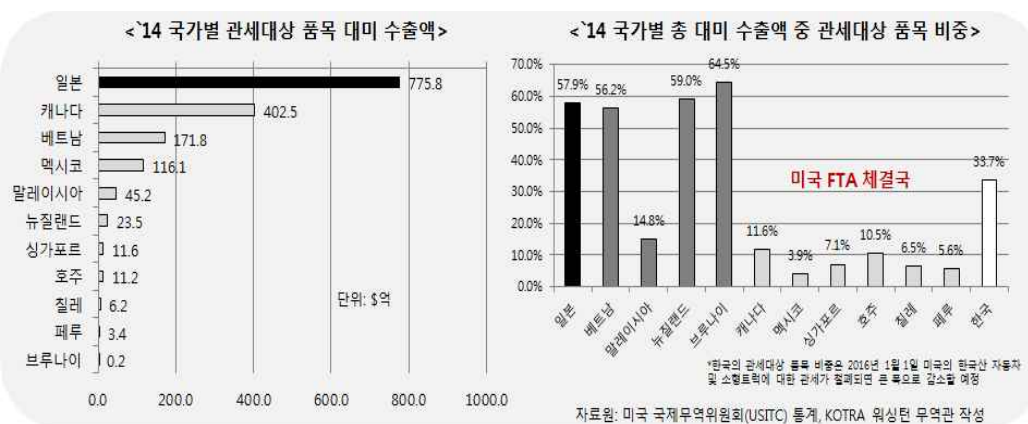
○ TPP와 미국 수입시장

- 새로운 무역협상 TPP, 전세계 GDP 40%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 탄생
- TPP 가입국의 미국 수입시장 비중은 37.6%, 일본은 그 중 15.2% 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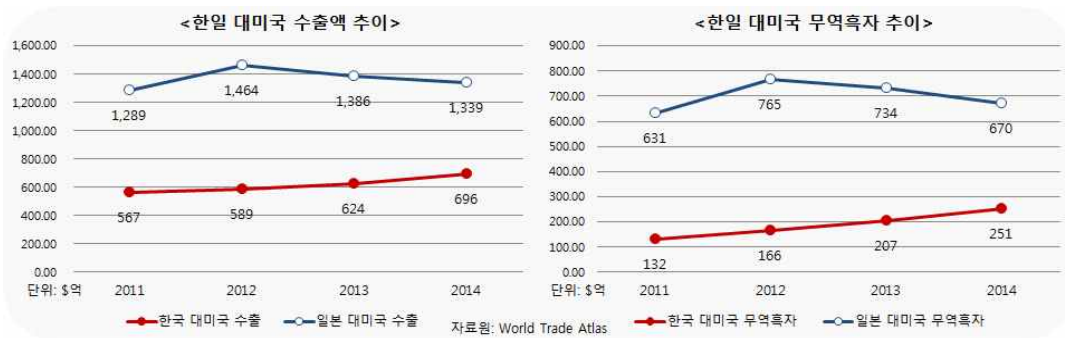
○ TPP와 일본

- 일본의 참여는 TPP 협상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난관
- TPP 타결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및 장기성장효과 전망



□ 한·일 對美 수출 경쟁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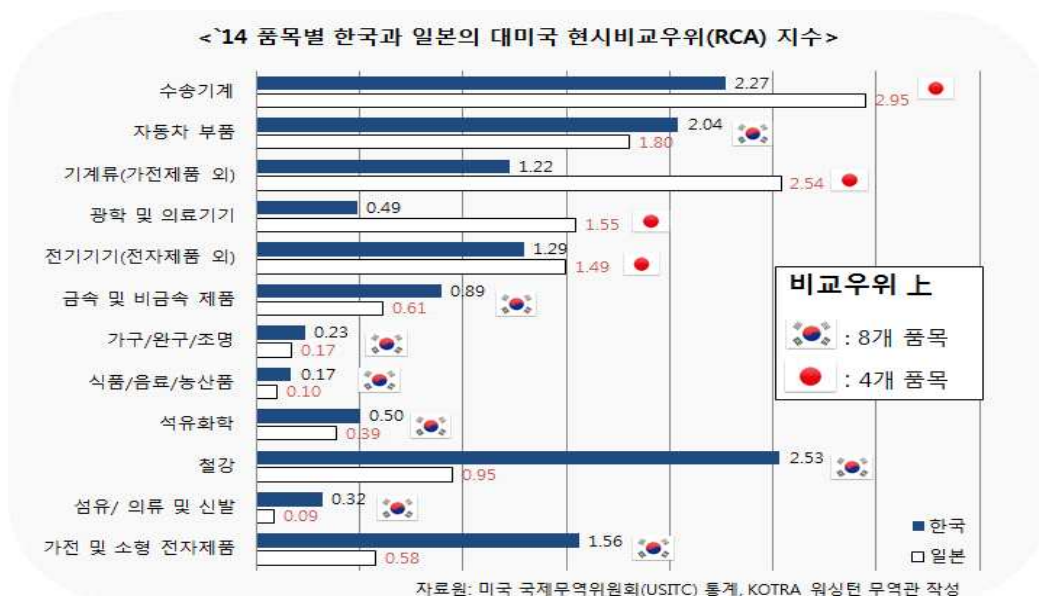
○ 한·미 FTA 이후 한국 대미수출 상승세, 엔저지속으로 최근 반전



- 2012년 이후 주요 경합품목에서 한국 강세, 일본 하락세
- 최근 엔저현상 장기화로 일본기업 실적 호조
- 일본의 적극적 경영전략에 대비, TPP 발효 이전 선제적 대응전략 필요

○ 산업별로 보면 경합도 높은 제품일수록 비교 열위

- 자동차, 기계 등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일본 우위
- 가전, 섬유, 철강 등 경합도 낮은 품목에서 한국 우위



□ 경쟁산업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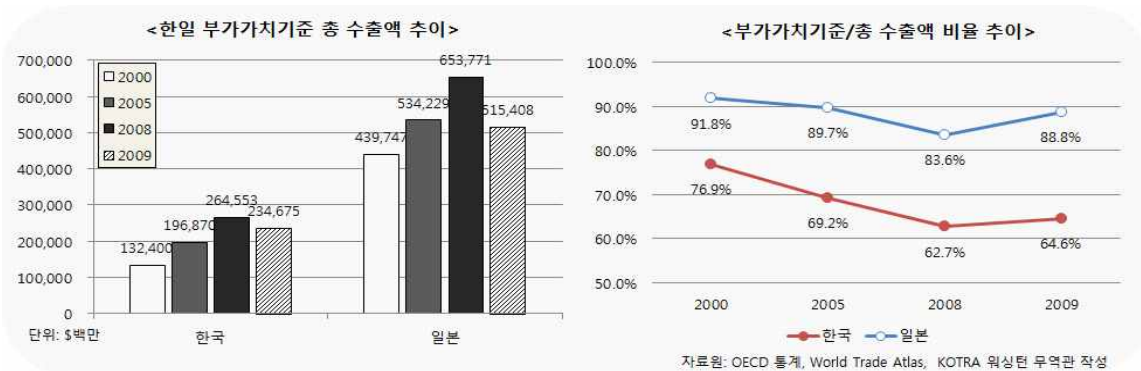
- **(자동차) 일본차의 반격, 한국차 관세철폐는 불행 중 다행**
 - (현황) FTA로 잘나가던 한국차 주춤하고 최근 일본차 강세
 - (전망) TPP, '16년 한국차 관세철폐와 현지화로 영향 제한적
 - (대응방안) 비용절감노력과 함께 현지기업과 기술협력 필요
- **(자동차 부품) TPP·엔저 이중고,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응**
 - (현황) 잘나가는 한국 자동차 부품, 주춤하는 일본 기업
 - (전망) 엔저와 TPP 효과 겹치면 對美 수출 전망 악화
 - (대응방안) 가격경쟁 불가피, 현지생산 늘리고 일본기업에 수출도
- **(기계) TPP·엔저 악재, 선택과 집중으로 극복**
 - (현황) FTA, 경기 호황으로 수출 증가세이나, 여전히 일본에 열세
 - (전망) 가격요인은 악재, 수요요인은 호재
 - (대응방안) 수요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
- **(전기·전자) 일본가전 약세, 전략 변경으로 새로운 경쟁에 대비**
 - (현황) 일본 가전의 몰락, 한국도 최근 휴대폰 등 일부 제품 부진
 - (전망) 관세영향 제한적이나 일부 고가제품에서 일본과 경쟁 예상
 - (대응방안) 샌드위치 피하기 위한 전략변화와 생산 효율화 필요
- **(철강) TPP 영향 제한적, 반덤핑 제소 관련 정부 지원 필요**
 - (현황) 품질·가격경쟁력 강한 우리제품, 일본과 경합도 낮아
 - (전망) TPP영향은 제한적, 일본과의 가격경쟁 가능성 낮아
 - (대응방안) 정부차원의 반덤핑 제소문제 해결 필요
- **(석유화학) 시장 침체 우려, 경쟁보다 한·일 협력으로 극복**
 - (현황) 유가하락, 수요감소로 한·일 양국 모두 어려움 겪는 중
 - (전망) TPP 영향 미미하나 일부제품에서 일본 수혜 예상
 - (대응방안)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공동 위기 극복
- **(섬유) 동남아 현지생산으로 TPP 체결을 호재로**
 - (현황) 한·일 양국 동남아 현지생산, 섬유산업 침단화 추진
 - (전망) TPP 타결은 오히려 한·일 양국에 이득
 - (대응방안)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응, 정부지원 필요

□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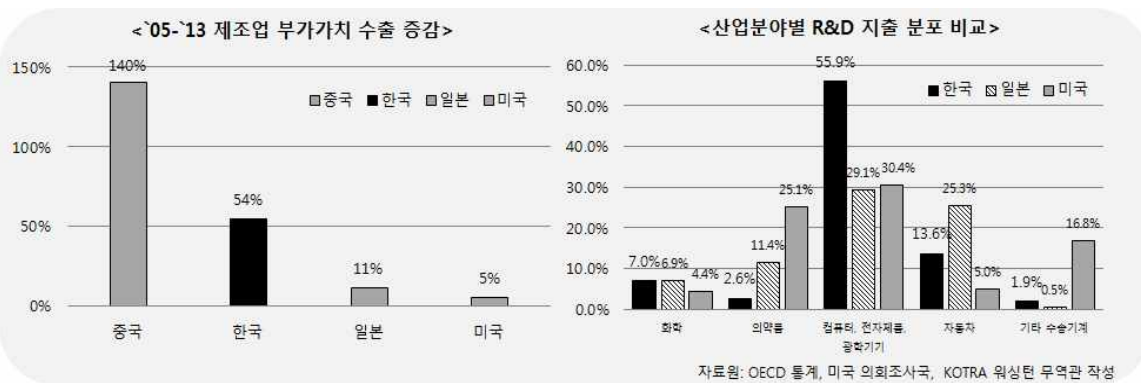
○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제시

- (1) **A**dvan**t**age: 우위 산업을 바탕으로 한 미국 진출 확대
- (2) **C**reativity: 신성장산업을 공략할수 있는 창조적 기술 및 지식 확보
- (3) **E**thnic: 미국에 떠오르는 중산층, 라틴계의 한국 문화 친화도를 활용

○ 국내창출 부가가치 높여 '명실상부' 무역 강국으로 거듭



○ GVC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 기반의 수출



○ FTA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의 부가가치 활용도 제고

○ 한국의 TPP 참가

- TPP 출범시 중국의 참가여부, 기 체결국간 협상내용에 따라 참가시기 조율 필요

I

미·일 TPP 현황

1. TPP와 미국 수입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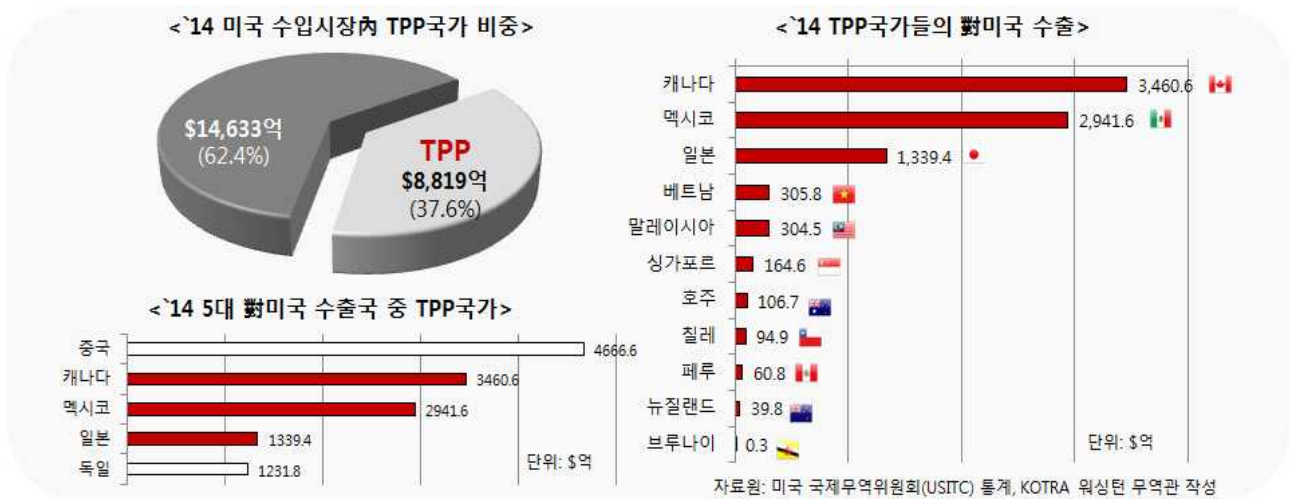
□ 21세기형 무역협상 -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rans-Pacific Partnership)

- TPP는 21세기형 무역협상 (로버트 호매츠 전 美 국무부 경제차관)
 - 관세문제를 주로 다루는 전통적 무역협상과 달리 포괄적 이슈를 다룸
 - 디지털 경제, 규제, 부패, 지식재산권, 노동, 환경, 국영기업 등 21세기 무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함
 - 상기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하고 지역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
- TPP는 미국이 아시아 내 군사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동반자라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
 - 중국 주도의 RCEP, AIIB에 대응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경제 규범을 세우기 위한 전략
 - 오바마, 중국의 TPP 참여 문의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아시아 경제 질서 재편 의도 밝힘
 - 현재 12개국 간 막바지 협상단계로 국가별 의제(country-specific)를 논의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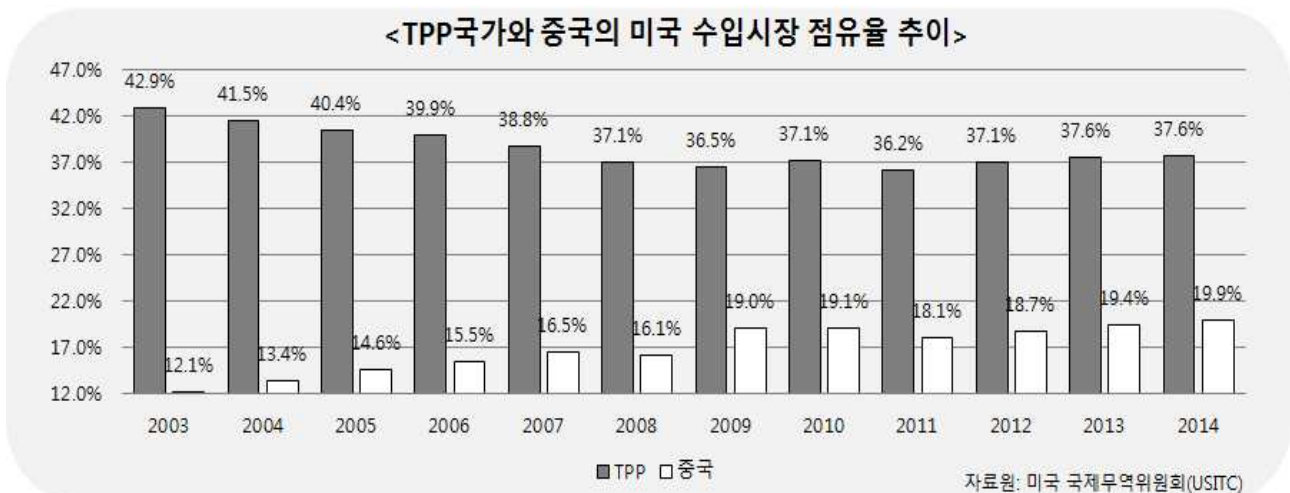
□ [규모] "TPP는 세계 GDP의 40%, 무역 비중의 1/3을 아우를 것"

- 세계 3대 경제대국 중 미국-일본 참여로 거대 경제권 형성
 - 최초가입 4개국(P4:브루나이, 칠레, 뉴질랜드, 싱가포르)과 8개 회원국 (미국, 일본, 호주, 페루, 베트남, 말레이시아, 멕시코, 캐나다)등 총 12 개국이 참가하는 거대 무역협정
 - 대한민국과 대만이 향후 TPP 참여 의사를 내비치거나 참가를 타진 중
 - 웬디 커틀러 美 USTR 부대표, "TPP 타결시 전세계 GDP의 40%, 전체 인구의 12%, 국제무역에서의 비중은 1/3에 이를 것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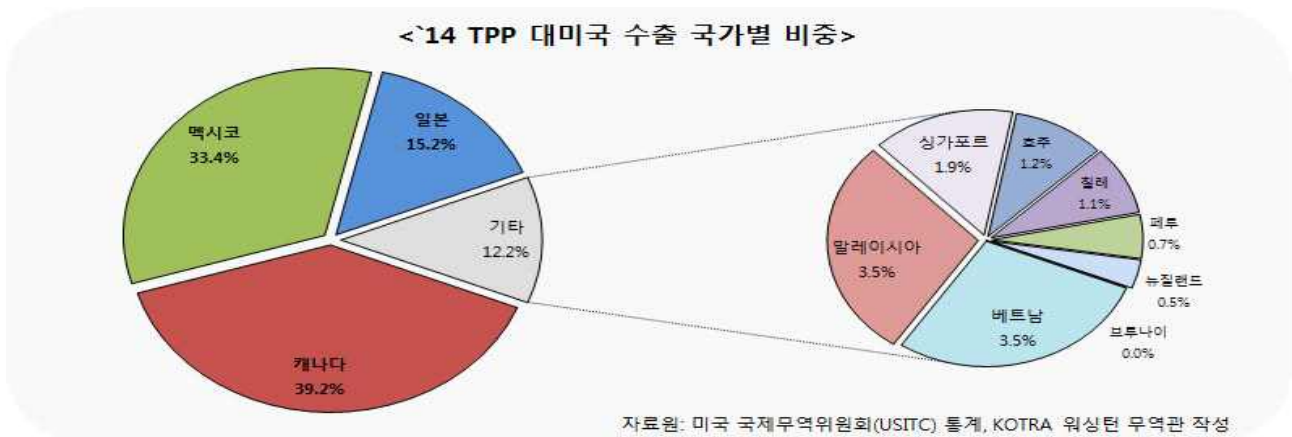
□ [시장점유율] TPP 가입국, 미국 수입시장 1/3 이상 점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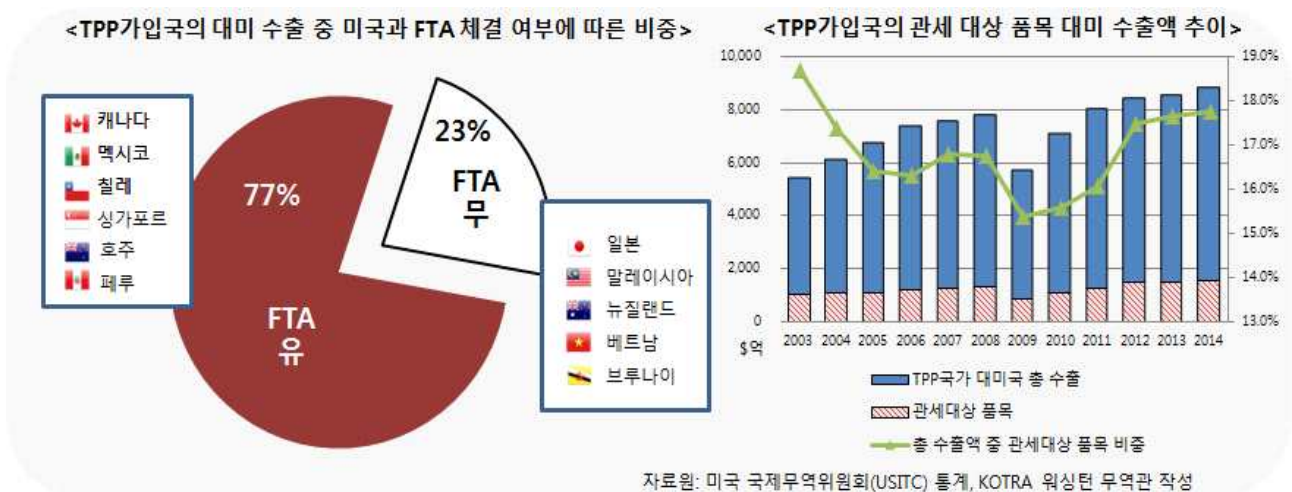
- TPP 가입국들이 '14년 미국 총 교역에서 차지한 비중은 40.5%이며, 美 수입 시장에서 TPP 가입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.6%에 달함
- 미국 수입시장의 점유율 상위 5위 국가에 3개의 TPP 국가가 자리하고 있으며, 베트남(15위), 말레이시아(16위) 등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신흥국도 포함
- TPP 국가들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, 최근 반등하여 소폭 상승
 - 2000년대 들어 WTO 가입 등으로 중국의 미국 수출시장 점유율이 급등한 반면, TPP 가입국들의 점유율은 하락세
 - 그러나 최근 TPP 국가의 점유율 반등 중



□ [국가별 비중] 북미 > 일본 > 동남아 > 중남미 > 오세아니아



-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접경국가로써의 이점과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의 영향으로 TPP 가입국의 총 대미국 수출 중 72.6% 차지
- 뒤이어 일본이 15.2%로 북미지역 외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약 9%를 차지하고 중남미(칠레, 페루) 국가와 오세아니아(호주, 뉴질랜드)가 각각 1.8%, 1.7%의 점유율 기록
- 미국은 TPP 가입국 중 6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
 - TPP 가입국의 총 대미 수출 중 77%를 FTA 체결 국가들이 차지
 - 이에 따라, '14년 기준으로 TPP가입국의 대미 수출 중 관세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은 17.8%에 불과했으며, 지난 10년간 FTA 체결국이 늘어나면서 관세대상 품목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



2. TPP와 일본

가. 미·일 TPP 협상 현황

□ 일본의 TPP 참가와 주요 쟁점

○ 일본의 TPP 참가 의도

- 일본의 TPP에 참가하는 일본 경제의 지속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과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개혁이 주창하는 진취적인 경제관, TPP 참가로 기대되는 막대한 무역 혜택에 따른 것

○ 미-일은 지식재산권, E-commerce,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반면,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대립 중

-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인하를 원하며, 미국은 일본의 농산물 수입 쿼터 확대를 원함
- 일본은 수입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나,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유럽·미국의 불만이 있음

□ TPP 협상 가속화 될 듯

○ 미·일 양자간 협상, 미국 의회의 TPA 회생 법안 통과 여부, 양국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, TPP 협상 타결의 조건이 갖추어짐

○ (미·일 양자간 협상) 일본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등을 놓고 양국이 팽팽히 대립하였으나, 최근 일본이 쇠고기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고 미국도 자동차 부품 개방에 유연성을 보임

○ (TPA 회생 법안) TPA 회생 법안이 美 의회에서 통과, TPP 협상 가속화 될 전망

○ (미·일 정치 일정) 내년 美 대선('16.11월)과 일본의 참의원 선거('16.7월)가 예정되어 있어 올해를 넘길 경우 TPP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모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, 오바마 행정부는 '15.7월을 협상 타결 기한으로 설정

□ TPA 회생 법안

-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(TPA: Trade Promotion Authority) 회생 법안 채택은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필수적 요소
 - TPA란 대통령이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조치로, 대통령에게 TPA를 부여하면 의회는 행정부 협상 결과를 최장 90일 안에 수정을 거치지 않고 비준 여부만 결정
 - TPA 부결시 미 의회 비준이 지연되고, 협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, 일본 등 협상국들은 TPA 회생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
- TPA 회생 법안 처리과정
 - (5.22) 미 상원에서 TPA 관련 법안 통과
 - (6.12) 미 하원에서 TPA 법안은 가결됐으나, 핵심 연계법안인 무역조정 지원(TAA: Trade Adjustment Assistance)법안*이 부결되어 처리 실패
 - * FTA, TPP 등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,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안
 - (6.18) 미 하원에서 TPA 회생법안 단독 상정 후 가결
 - (6.24) 미 상원에서 TPA 회생법안 최종 통과

《 TPP 지연이 우리에게겐 기회의 시간 》

◇ 미 전문가, TPP 늦으면 2016년 말에야 발효될 수도

* 케이트 인스티튜트(Cato Institute) 대니얼 아이켄슨 무역정책연구담당 이사

- 미 국제무역위원회(ITC) 영향평가 보고서 발표 시기, 미 의회 토론과정을 고려할 때, 현실적으로 '15년도 내 발효 어려워
- 의회 상정과 양원 표결 기간 5~7개월 소요, 빠르면 '16년 5~7월 발효 전망
 - 그러나 미 대선('16.11월)의 영향으로 TPP 표결 늦어질 수 있어 '16년 말에야 발효될 가능성 있음

◇ TPP 협상 지연은 우리에게겐 기회와 준비의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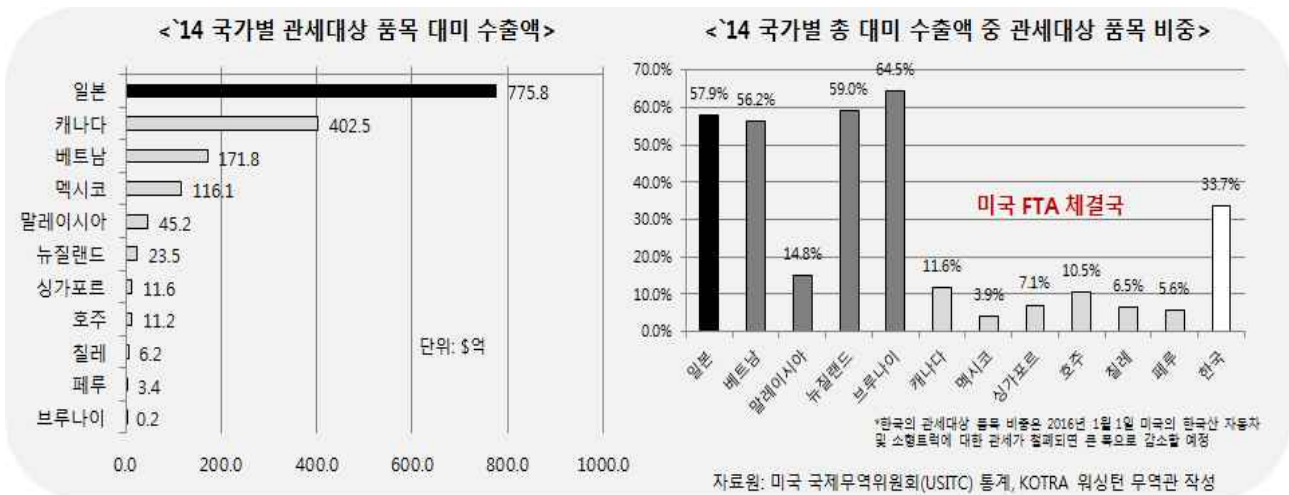
- TPA 법안 통과문제로 TPP 협상이 지연됨. 우리에게 그동안 미뤄온 TPP 가입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며, 한편으론 TPP 발효 이후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할 시간

□ 미-일 협상 과정

연도	내용
2013	○ 4.12 일본의 TPP 참가 위한 미-일 사전협약 타결 ○ 4.20 TPP 장관 회담서 기존 11개국 일본의 참가 지지
2014	○ 2월 TPP 각료회의 ○ 4.24 美·日 정상회담 전후 美·日 TPP 장관 협의 ○ 5.19~20 TPP 각료회의 (향후 과제 논의, 공동성명 채택) ○ 6.9~10 美·日 양자 협의 (자동차 및 비관세조치) ○ 7.3~12 수석대표회의 (향후 각료회의 일정 합의 없이 종료) ○ 7.16~18 美·日 양자 협의(자동차 및 비관세조치) ○ 8.4~5 美·日 양자 협의(농산물 등) ○ 8.13~14 美·日 양자 협의(자동차 및 비관세조치) ○ 9.1~10 수석대표회의 ○ 9.3~5 美·日 양자 협의(자동차 및 비관세조치) ○ 9.9~10 美·日 양자 협의(농산물 등) ○ 10.19~24 각료회의 ○ 11.10 APEC 계기 TPP 정상 회의 ○ 12.7~12 수석대표회의
2015	○ 1.14~16 美·日 양자 협의 ○ 1.25~2.1 수석대표회의 ○ 1.28~2.3 美·日 양자 협의(자동차, 농산물) ○ 3.5~6 美·日 양자 협의 ○ 3.9~15 수석대표회의 및 美·日 양자 협의(농산물) 병행 ○ 4.20 미-일 각료 협의 결렬 - 쇠고기, 자동차 관련 관세 입장차 ○ 5.22 TPA 법안, 미 상원에서 가결 ○ 5.24 APEC 통상장관 포럼 - “TPP 협상 최종 타협 국면” (마이클 프로먼 美 대표) ○ 5.16~5.28 수석대표 회담 - 세이프가드, 무역기술장벽(TBT), 전자상거래, 노동 문제 합의 - 환율조작 문제 쟁점화 ○ 미-일 사무관 회담 타결 불발 ○ 6.12 TPA 회생안, 미 하원에서 관련법안 TAA 부결로 처리실패 ○ 6.18 TPA 회생안, 미 하원에서 단독 상정 후 통과 ○ 6.24 TPA 회생안 상원 통과

* 자료원 : 글로벌윈도우, 무역협회

나. 일본의 TPP 수혜효과



□ 일본, 미국 수입시장에서 TPP 최대 수혜국 중 하나

- 미국 수입시장에서 TPP 가입국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5.2%에 불과하지만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액은 756억 달러로 TPP국가 중 최대
- 특히, 일본의 총 대미 수출액 중 약 58%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다른 양상을 보임
 - * 말레이시아(14.8%)의 경우, 대미국 수출의 약 60%를 집적회로, 핸드폰 등 전자기기가 차지해 관세 부과 품목의 수출 비중 낮아

□ 자동차, 자동차 부품, 타이어, 시계, 첨단기기 등 수혜 예상

-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의 대미 수출품목 중 약 46%가 자동차 (HS코드:8703)로 나타났으며, 자동차 및 엔진 부품이 10% 이상을 차지해 자동차 관련 품목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
- 관세 부과 중인 일본의 대미 수출 10대 품목(HS코드 4자리 기준)
 - 자동차, 자동차부품, 엔진 시동용 전자기기, 타이어, 엔진부품, 탭/코크/밸브, 시계(손목, 탁상용 등), 전동축, 볼베어링, 금속가공용 기계
- 일부 농산품, 섬유, 의료기기 등도 수혜 예상

□ 일본, TPP 가입으로 장기 성장효과 기대

- 이토 모토시게 교수는 미국 퍼듀대학의 '국제무역분석프로젝트(GTAP)' 모델을 적용하면 TPP 협정의 경제효과가 10년 간 3조2000억 엔(일본 GDP의 0.66%)에 달할 것으로 분석
- 태평양 경제협력회의(PECC) 보고서는 GDP의 2%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며 '멜리츠 효과(Melitz Effect)*' 기대
 - * 국제무역이 국가 내 산업 간 구조조정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
- 양국 간 교역량이 경제규모와 비례하고 국가 간의 거리와는 반비례한다는 '중력모형이론(Gravity Model)'에 따라 일본의 TPP 참여는 아시아·태평양 지역 국가 간 무역 증대와 중간소득 국가의 무역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일조할 것
- 일본의 TPP 협상 참여와 협의 내용은 향후 일본·유럽 간 EPA(경제연대협정: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와 RCEP(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: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협상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

《 TPP에 대한 일본의 반응 》

◇ 일본의 국제화 전략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의 규모 확대·다양성 강화와 사업 속도를 동시에 반영한 ‘가치 창조 패턴’ 구축이 절실하다고 진단
- 특정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 점유율 및 수익을 확보한 ‘톱 글로벌 틈새 기업’ 등,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중인 중견·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분석
- 경제산업성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통상 환경 정비가 중요하다고 밝히며,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3대 국제 전개전략을 확립
 - (경제적 네트워크 구축) TPP를 포함, RCEP, 한중일 FTA, 일·EU EPA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일본 교역국과의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
 - (전략적 접근) 일괄 진출이 아닌, 각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, 수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, 자원 공급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
 - (해외직접투자 유치 촉진) 투자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 유치 지원 체제를 강화, 글로벌기업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, 국내 혁신 및 고용 창출을 위한 해외 신기술 및 인재 적극 수용

◇ TPP 참가에 대한 일본 업계 입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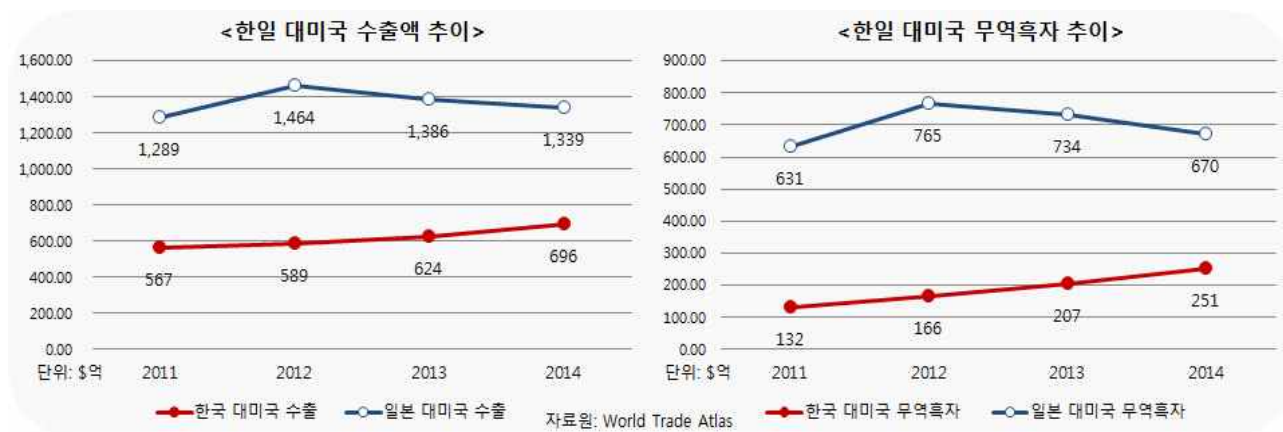
- (전자) 일본 전자정보 기술산업협회 TPP 참가 환영
 -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‘자유무역협정 대응 지연’을 해소
 -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전개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한 층 가속할 것
- (자동차) 일본 자동차 공협회 역시 TPP 참가를 지지
 - TPP 참가국의 자동차 관세 지불액은 약 2억 2470억 엔
 - TPP 가입으로 한국 등과 더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
- (농업) 일본 농업계는 TPP 참가에 반대
 - 쇠고기, 쌀, 보리, 유제품, 돼지고기 등 5대 민감품목 피해 예상
 - 특히 쌀 수입 수량제한 관련 양국간 입장차 있어 협상 난항 중

II

한·일 對美 수출 경쟁 분석

1. 한·일 對美 수출 경쟁 현황

가. 산업 전반



□ [수출 및 무역수지] 명암 엇갈린 최근 한·일 대미국 수출 행보

- 한·미 FTA 발효 이후,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, 일본은 하락세
-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'11~'14년 연평균 7.1% 증가한 반면, 일본의 경우 같은 기간 1.3% 증가에 그쳤으며 최근 2년 간 하락
- 무역흑자 역시 한국이 한·미 FTA 이후 3년간 매년 20%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일본은 지난 2년간 엔저에도 불구하고 흑자폭 감소

<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수출 및 무역수지 증감 동향>

구 분		2012	2013	2014	'11~'14 연평균 증감
한 국	수출	4.0%	5.9%	11.6%	7.1%
	무역흑자	26.0%	24.3%	21.2%	23.8%
일 본	수출	13.6%	△5.4%	△3.3%	1.3%
	무역흑자	21.1%	△4.1%	△8.7%	2.0%

자료원: USITC

□ [점유율] 한국,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3% 달성 임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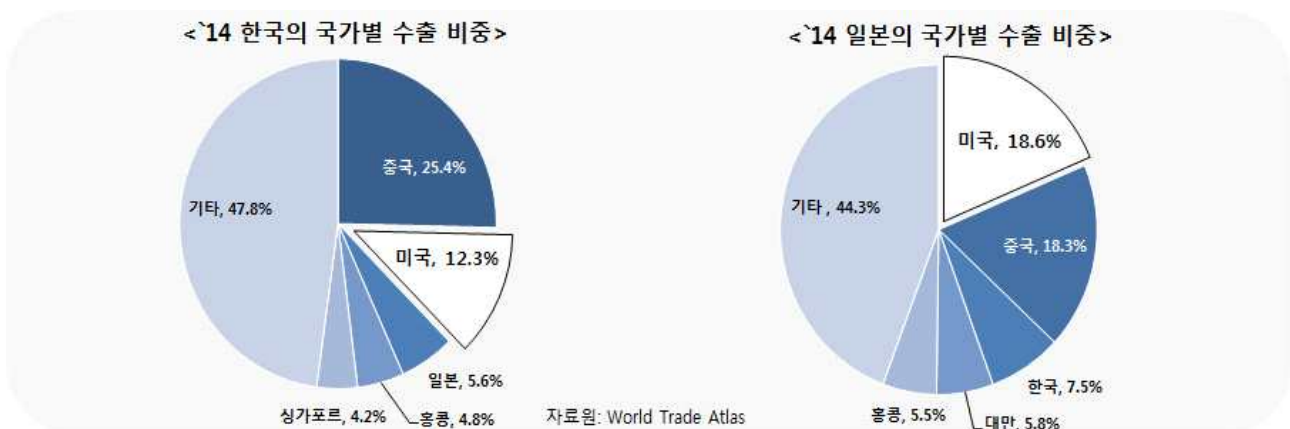
- 한국과 일본의 '14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는 각각 6위와 4위
 - 한국의 점유율은 한-미 FTA 체결 이후 '12년 2.59%에서 '14년 2.97%로 상승하여 3%에 근접
 -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'12년 6.43%에서 '14년 5.71%로 하락

<한국과 일본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>

	2011	2012	2013	2014
한국	2.57%	2.59%	2.75%	2.97%
일본	5.84%	6.43%	6.11%	5.71%

자료원: World Trade Atlas

□ [미국시장의 비중] 미국, 중국 제치고 일본 수출 대상국 1위 올라



- 일본의 미국 시장 수출 비중
 - '13년 일본의 총 수출 중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수출시장을 탈환하였으며, '14년에도 18.6%로 증가
- 한국의 미국 시장 수출 비중
 - 반면,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은 '03년부터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·미 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비중은 '11년 10.1%에서 '14년 12.3%로 증가하며 확대 추세

□ [전망] TPP에 따른 미·일 관세양허로 한·일 경쟁 심화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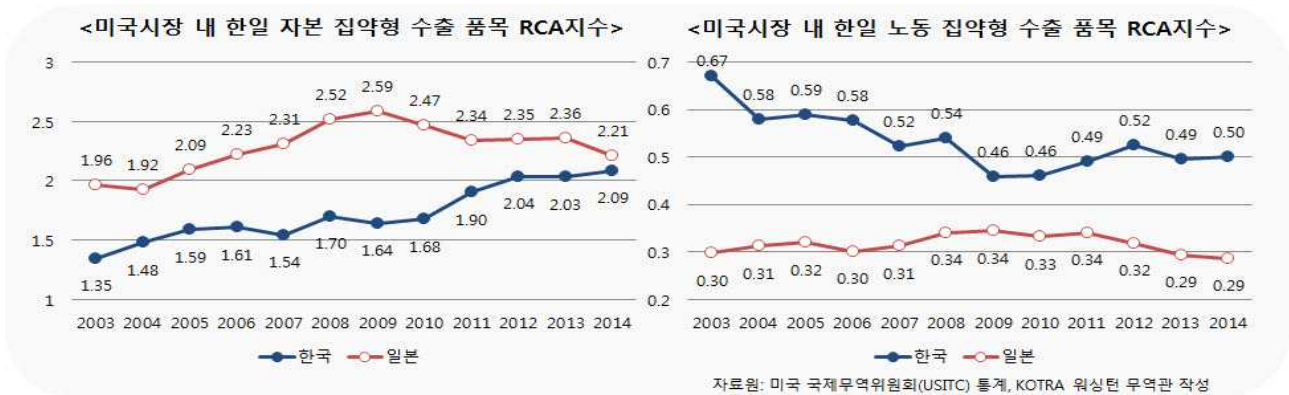
- TPP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세양허가 한·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FTA의 주요 수혜품목인 자동차 부품, 석유화학(제트유·등유), 섬유 등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
 - * 제트유·등유 한·미 FTA 발효 후 수출액 34.6% 증가
- 특히, 한·미 FTA에 따른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가 2016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추후 결정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양허안에 주목할 필요 있음
- 한·일 양국 무관세가 적용중인 일부 전기·전자제품, 휴대전화 등은 큰 영향이 없을 전망
 - * WTO ITA(정보기술협정,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)는 국제 정보통신 기술발전과 무역 자유화를 위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입국간 정보·통신 기기 수출입에 무관세 혜택 적용

<주요 對美 수출품목 관세>

품목 (HS.Code)	기본 관세율	한-미 FTA 관세율
자동차(8703)	2.5%	2.5% (2016.1 철폐)
자동차 부품(8706,8708)	무관세 ~ 4.0%	무관세
기계류(84)	무관세 ~ 9.9%	무관세 ~ 5.9%
전기·반도체 (85)	무관세 ~ 15.0%	무관세 ~ 7.5%
가전·전자제품 (8508, 8509, 8510, 8516, 8517, 8518, 8519, 8528, 8543)	무관세 ~ 5.3%	무관세 ~ 2.5%
철강(72)	무관세 ~ 10.0%	무관세 ~ 2.0%
철강제품(73)	무관세 ~ 12.5%	무관세 ~ 4.7%
석유화학(27,29,38,39)	무관세 ~ 7.0%	무관세 ~ 4.5%
섬유·의류·신발(50~67)	무관세 ~ 48.0%	무관세 ~ 37.5%

자료원 : USITC

나. 산업구조



□ 한국의 대미 주력수출품, 노동·기술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

-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과 일본의 자본집약형 수출 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(RCA)를 분석한 결과,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, 한국은 상승세
- 자본집약형 산업의 대미국 수출은 일본의 경쟁력을 거의 따라잡은 반면, 한국이 우위를 보이는 노동집약형의 비교우위는 최근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10년간 큰 폭 하락
- 금융위기 이후로 일본의 대미국 수출이 전체적으로 부진해 한국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일본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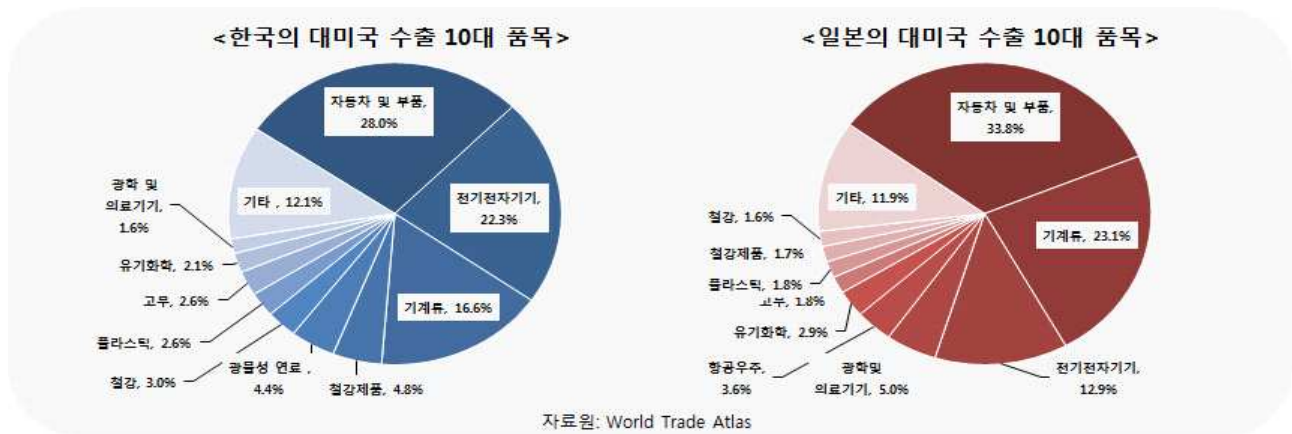
<품목 분류>

산업 구분	표준국제무역분류(SITC) 품목
자본 집약형	자동차(SITC 78), 비철 금속(SITC 68), 철강(SITC 67), 고무제조품(SITC 62), 정유/향료/합성수지 등(SITC 55), 염색/채색/태닝 제품(SITC 53), 전류(SITC 35), 음료 및 담배(SITC 1)
노동 집약형	섬유(SITC 26), 각종 제조품(SITC 6과 8중 62,67,68,88,87 외 품목)
R&D 집약형	OECD와 EU에서 지정한 R&D 집약형 첨단기술 산업으로 항공우주, IT, 의약품, 과학기기, 전기기기, 기계류, 화학, 무기 산업에서 R&D가 집약적인 품목

* 자본 및 노동집약형 분류: Yilmaz(2002), Erilat(2006) 논문 및 보고서에서 사용된 분류

2. 한·일 對美 수출경합도 및 비교우위 분석

□ [주요품목] 한·일 對미국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9개 품목 중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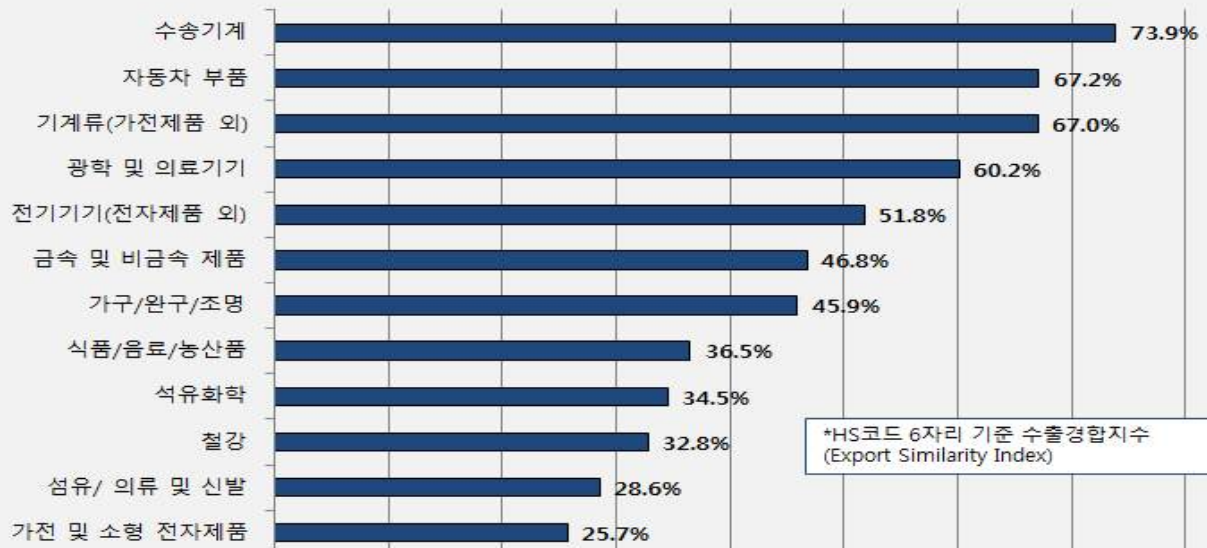


-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 10대 품목(HS코드 2자리 기준) 중 9개 품목이 중복
 - 한국의 10대 품목 중 일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광물성 연료이며, 일본 10대 품목 중 한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항공·우주 제품
- 양국의 수출산업 구조가 유사하여 다수 품목에서 경합 중
 - 특히, 자동차 및 부품, 전기·전자기기, 가전 및 기계류가 양국의 3대 수출 품목으로 나타남
 - 상기 3개 품목이 양국의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6.8%(한), 69.8%(일)에 달함

□ 일본과 경합도 높은 품목에서 비교우위지수 열세 보여

-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50% 이상인 품목 중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일본 대비 미국시장 비교우위지수가 낮게 나타남.
- 특히, 최근 한국산 집적회로의 대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자기기 비교우위 지수가 급락하며 일본의 지수를 하회
-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 및 철강 품목에서는 한국이 미국시장 내 비교우위(RCA 1 이상)를 보인 반면, 일본은 감소세를 보이며 1 이하 기록

<`14 품목별 한일 대미국 수출경합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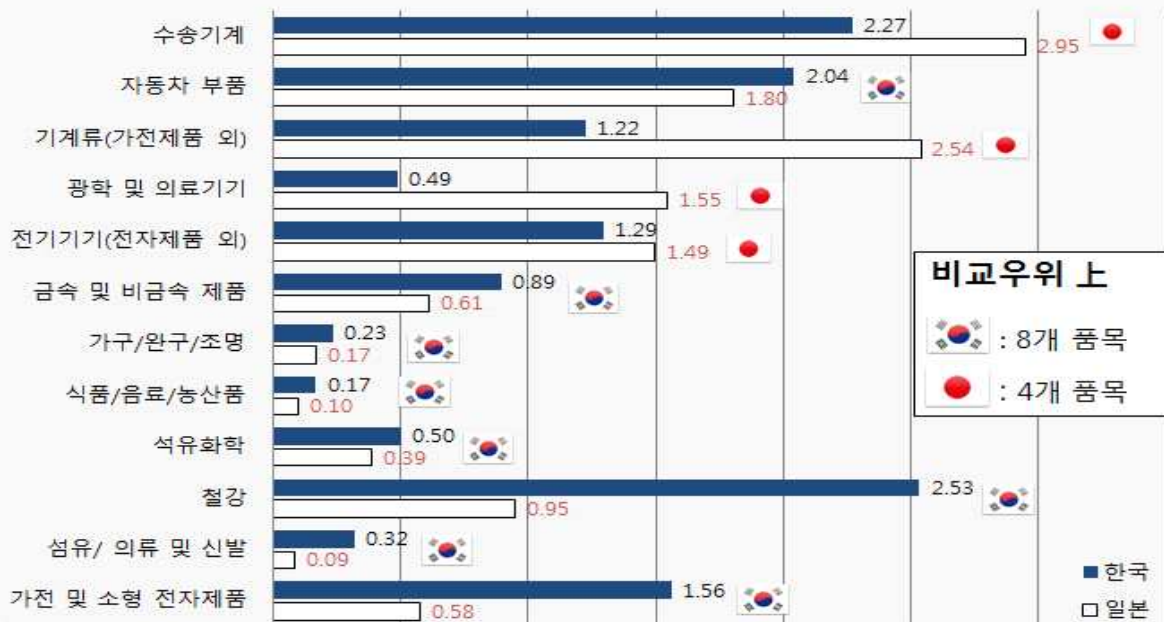


자료원: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 통계,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

수출경합도지수(Export Similarity Index):

특정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양국의 수출상품구조가 완전 일치할 경우 100%이며, 완전 불일치 할 경우 0으로 나타남. 수출경합도지수는 A국의 C시장에 대한 수출 상품 중 상품i의 비중과 B국의 C시장에 대한 수출 상품 중 상품i의 비중 중 작은 수치에 100을 곱하여 모든 상품에 대한 값을 합산한 수치

<`14 품목별 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현시비교우위(RCA) 지수>



자료원: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 통계, KOTRA 워싱턴 무역관 작성

현시비교우위지수(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):

특정시장에서 상품i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A국의 수출에서 상품i가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특정시장에서 A국의 상품i의 비교우위를 수치화하는 지수로 지수가 1보다 높을 경우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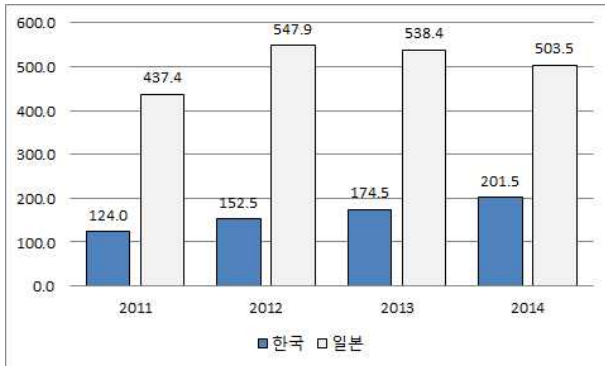
□ 한국과 일본, 한·미 FTA 이후 대부분 품목에서 회복 엇갈려

- 한·미 FTA 발효 직전년도인 '11년 대비 '14년 대미국 수출을 비교한 결과, 한국은 가전 및 전자제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
- 일본은 가전 및 전자제품, 석유화학 및 화학, 가구/조명/완구, 광학 및 의료기기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
- 한국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대미국 수출은 '12년 미국의 경기악화로 인해 대폭 감소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,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의 수요 감소로 해당 품목의 수출은 감소세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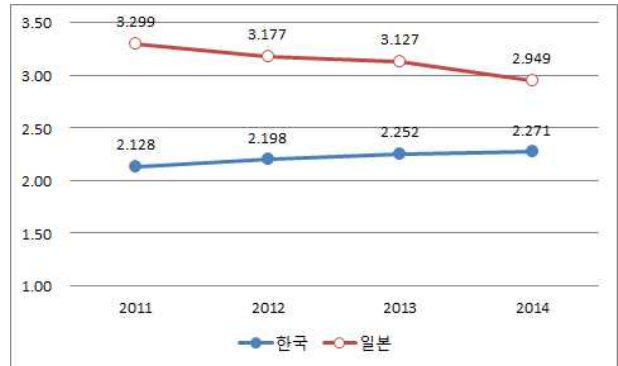
□ 엔저 장기화의 영향으로 선제적 대응 필요

- 한·미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상황 호전
- 그러나 엔저정책 장기화와 원화 강세로 인해 최근 수출 상황 악화
 - * '15.5월 수출액 423억9천200만 달러, 전년 동월대비 10.9% 감소(산업부)
- 일본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가격을 내리지 않았으나, 엔저현상 지속으로 가격인하를 단행할 경우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수출에 타격 우려
 - '14년말 이후 일본기업의 결제통화 기준 수출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
 - * ('13.12월) 99.1 → ('14.11월) 97.1 → ('14.12월) 96.1 → ('15.1월) 95
- 일본 글로벌 기업이 축적된 수익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경우 한국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
 - 일본기업들은 엔저 이후 신규 투자를 보류하면서 소극적 경영을 유지했으나, 2015년 들어 대규모 설비투자과 거대 M&A 안전을 연이어 발표. 축적된 사내 유보금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영이 전개될 전망
 - * 재무성 발표 일본기업의 내부유보(당기순이익-배당금): 9.9조 엔('12년) → 23.2조 엔('13년)
 - * 각종 충당금을 포함한 사내 유보금은 사상 최대인 328조 엔에 이를 전망
- 일본기업들이 장기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기업들 역시 TPP 발효 이전에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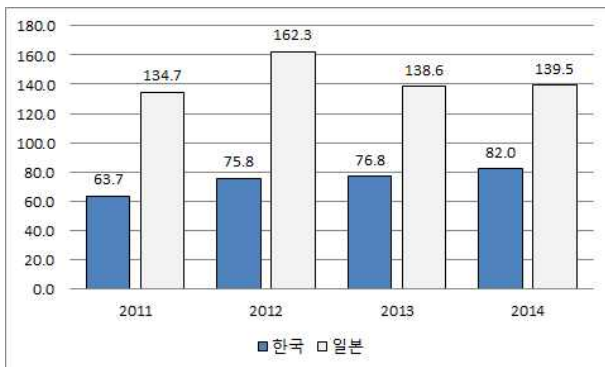
〈품목별 대미국 수출 추이〉(단위: \$억)
[수송기계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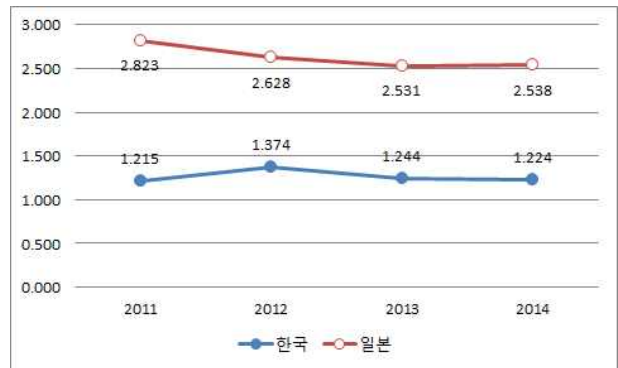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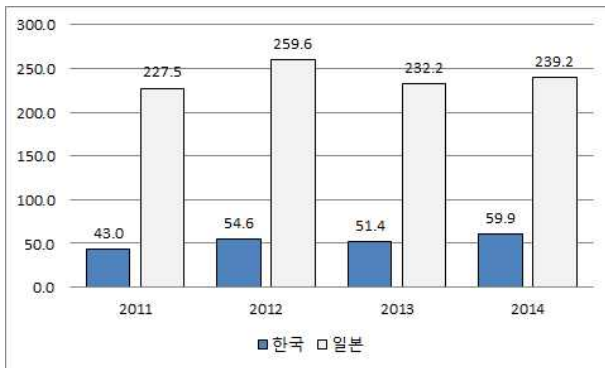
〈대미국 수출 RCA 지수 추이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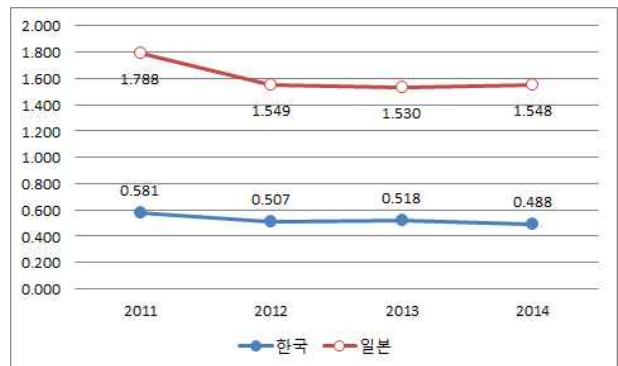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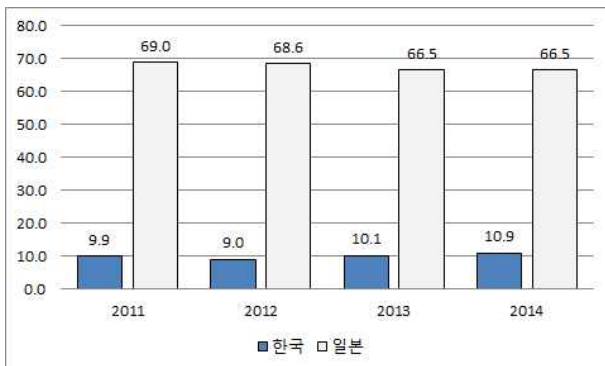
[자동차부품]



[기계류](가전제품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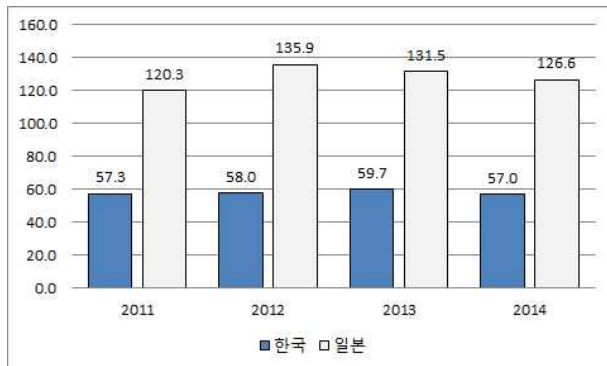


[광학 및 의료기기]



자료원: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 통계, KOTRA 워싱턴 무역관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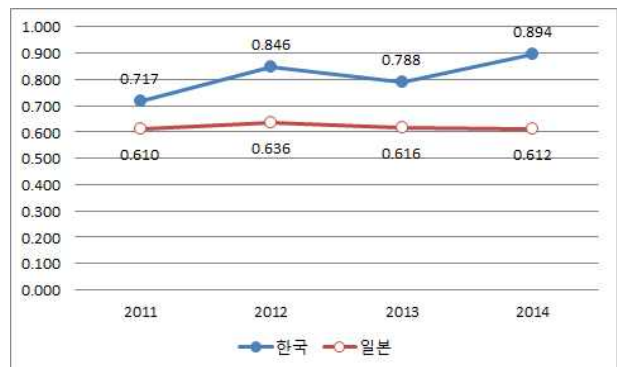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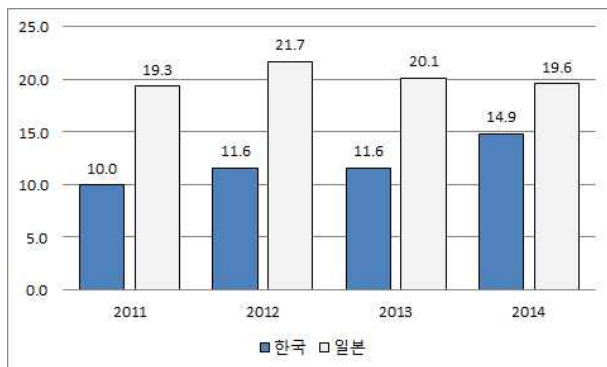
〈품목별 대미국 수출 추이〉[단위: \$억]
[전기기기](소비자 전자제품 제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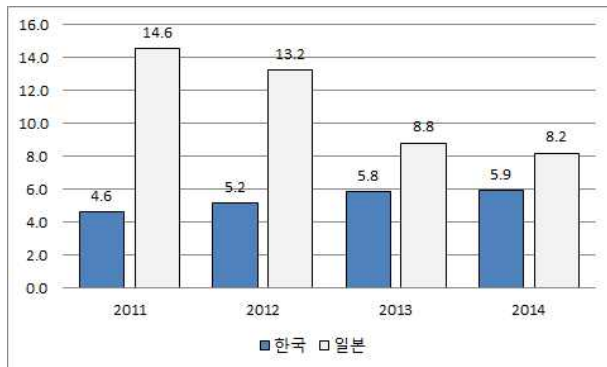
〈대미국 수출 RCA 지수 추이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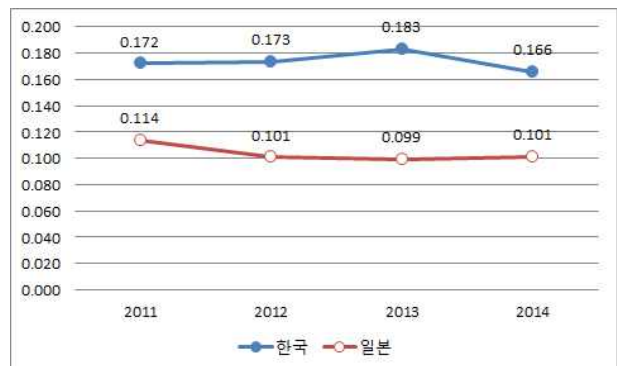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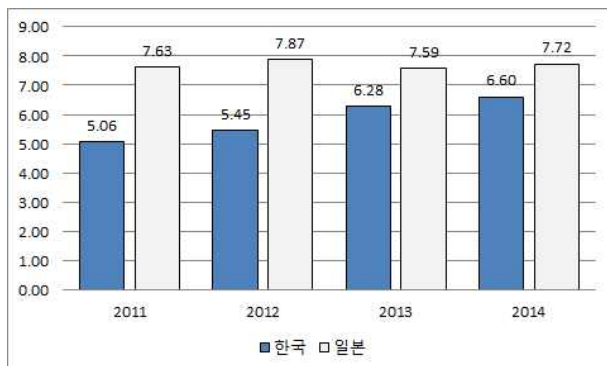
〈금속 및 비금속 제품〉



〈가구, 완구, 조명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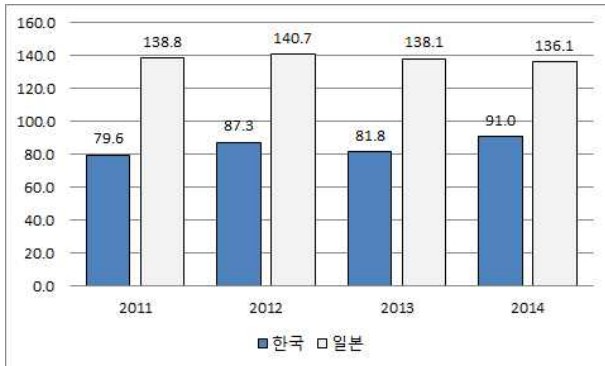


〈식품, 음료, 농산물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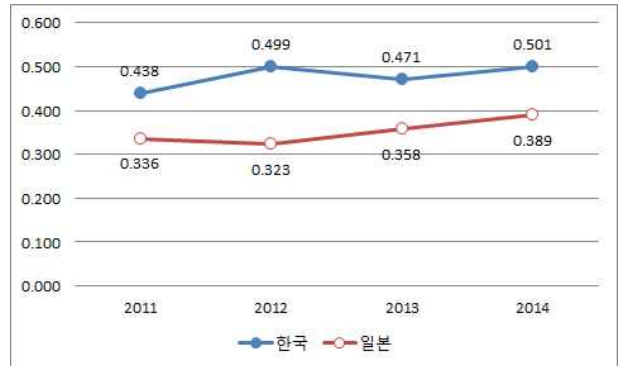


자료원: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 통계, KOTRA 워싱턴 무역관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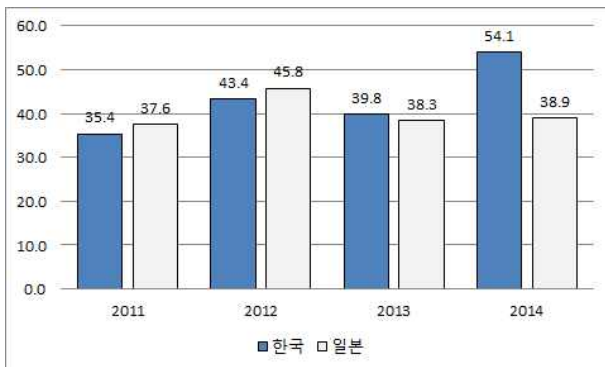
〈품목별 대미국 수출 추이〉[단위: \$억]
[석유화학 및 기타 화학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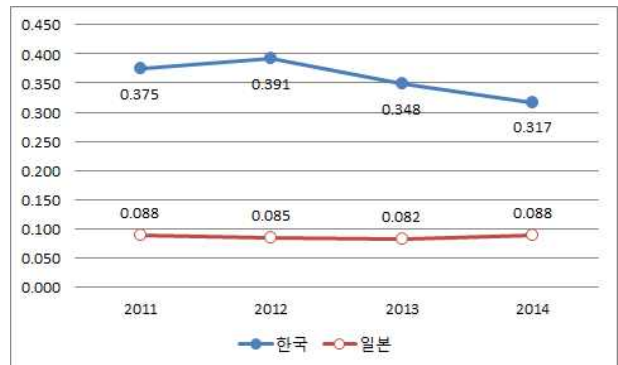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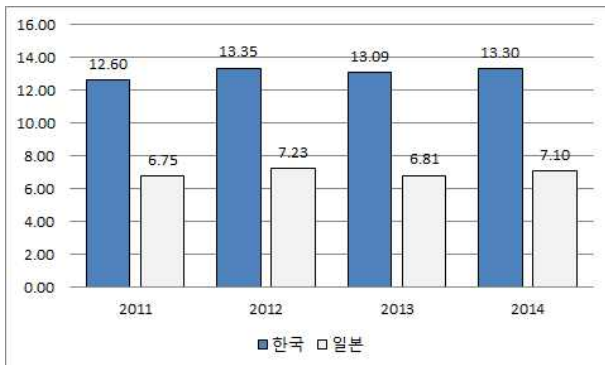
〈대미국 수출 RCA 지수 추이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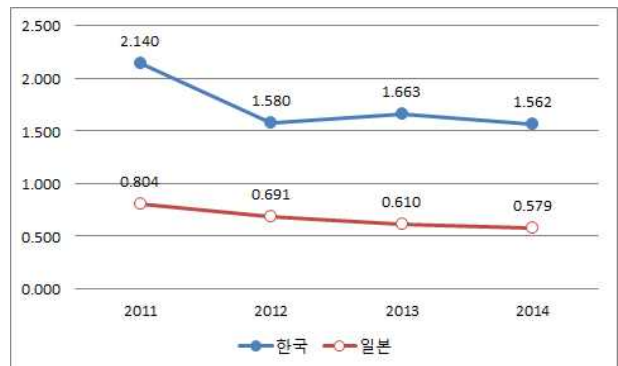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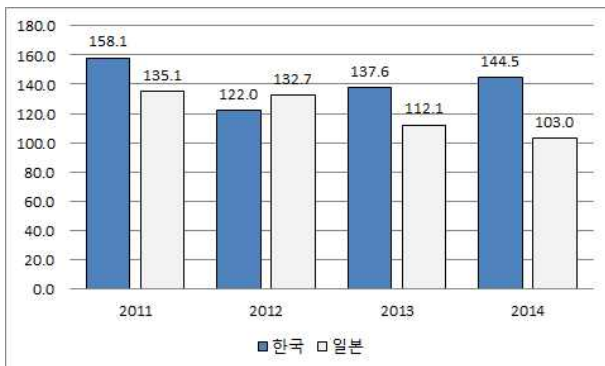
[철강]



[섬유, 의류, 신발]



[가전 및 소형 전자제품]



자료원: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 통계, KOTRA 워싱턴 무역관 분석

품목 분류 및 분석 방법

<품목 분류>

번호	품 목	내 용
1	수송기계	HS코드 17부(86, 87, 88, 89)의 철도차량, 자동차, 항공기, 선박 품목 및 관련 부분품
2	자동차부품	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가 규정하는 HS코드 6자리 기준 자동차부품 품목(타이어, 엔진 장치, 엔진 부품 등 87호 외 자동차부품도 포함)
3	기계류(가전제품 제외)	HS코드 84류(보일러 및 기계류)에서 에어컨, 세탁기, 식기세척기 등 가정용 기계를 제외한 품목
4	광학 및 의료기기	HS코드 90류 내 광학 · 의료 · 측정 · 정밀기기
5	전기기기(전자제품 외)	HS코드 85류(전기기기)에서 무선통신기기, TV, 카메라 등 소비자 전자제품을 제외한 품목
6	금속 및 비금속 제품	HS코드 15부(72~83) 중 철강(72) 및 철강제품(73)을 제외한 품목
7	가구, 완구, 조명	HS코드 20부(94~96)의 가구 및 조명기구, 완구 및 스포츠용품과 잡품을 포함한 품목
8	식품, 음료, 농산품	HS코드 1~4부(01~24)의 농수산물, 축산물, 식품, 음료 등의 품목
9	석유화학 및 기타 화학	HS코드 5~7부(25~40)의 광물성 연료, 고무, 플라스틱, 기타 화학물질 등의 품목
10	철강	HS코드 72~73류의 철강 및 철강제품
11	섬유, 의류, 신발	HS코드 11, 12부(50~67)의 각종 섬유, 의류 및 신발류의 품목
12	가전 및 소형 전자제품	위 기계류, 전기기기 품목에서 제외된 무선통신기기,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과 TV, 냉장고,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

<분석 방법>

- 한국과 일본의 미국시장 내 수출경합도지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DataWeb 수출입통계 DB를 통해 각 품목을 HS코드 6자리로 세분화하여 각 품목에서의 경합도를 집계
- 현시비교우위 역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DataWeb 수출입통계 DB를 통해 품목별 한국과 일본의 대미국 수출, 미국 수입시장 규모, 한국과 일본의 총 대미국 수출을 사용하여 분석

III

산업별 대응방안 및 시사점

1. 경쟁산업별 전망 및 대응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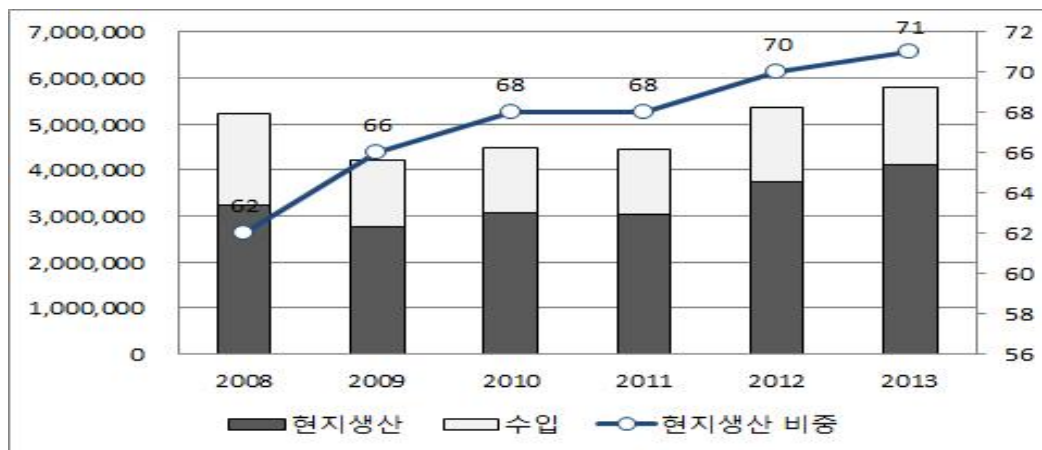
가. [자동차] 일본차의 반격, 한국차 관세철폐는 불행 중 다행

□ [현황] FTA로 잘나가던 한국차 주춤하고 최근 일본차 강세

- 일본 완성차의 미국 내 총 판매량 중 현지생산 비중이 70% 이상(표-1)이나, 여전히 일본 내 생산차량이 미국 수입차시장의 22%를 차지(표-2)
- 한국과 일본의 승용차 세부품목별 대미국 수출을 비교했을 때, 품목별 수출구조가 유사하며 1,500~3,000CC 및 3,000CC 이상 차량이 주요 수출 품목(표-3)

<표-1> 미국 내 일본 브랜드 차량 총 판매 중 현지생산 비중 현황

(단위: 대수, %)



자료원: JAMA

<표-2> 승용차(HS코드:8703) 대미 수출 5대 국가

(단위: 달러)

	국가	2011	2012	2013	2014	'14 점유율
1	캐나다	38,596,103,989	45,513,616,885	43,585,442,065	43,173,242,175	27.9%
2	일본	30,014,702,296	37,742,350,776	37,805,860,072	33,920,547,063	22.0%
3	독일	19,646,261,771	23,619,291,294	25,763,314,887	25,994,512,689	16.8%
4	멕시코	15,440,409,185	17,734,211,826	20,371,829,262	21,463,776,354	13.9%
5	한국	8,612,570,304	10,621,819,755	12,146,984,326	14,687,239,400	9.5%
총		123,164,218,361	147,345,973,354	153,555,884,483	154,514,141,248	100%

자료원: USITC

<표-3> '14년 한-일 승용차 세부품목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달러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비중	수출	비중
1500-3000CC	8703.23	10,159,219,646	69.2%	20,474,125,986	60.4%
3000CC 이상	8703.24	2,794,409,366	19.0%	12,144,725,448	35.8%
1000-1500CC	8703.22	1,627,107,818	11.1%	1,186,002,028	3.5%
기타 승용차	8703.90	105,280,610	0.7%	79,729,828	0.2%
특수용 자동차	8703.10	816,960	0.0%	8,612,287	0.0%
디젤 1500-2500CC	8703.32	321,000	0.0%	631,252	0.0%
1000CC 이하	8703.21	84,000	0.0%	25,090,611	0.1%
총	8703	14,687,239,400	100%	33,920,547,063	100%

자료원: USITC

<표-4> '10-14년 한-일 자동차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8703	14,687,239	22.0	33,920,547	-10.3
2013년	8703	12,037,650	13.3	37,805,803	0.2
2012년	8703	10,621,820	23.3	37,741,921	25.7
2011년	8703	8,612,570	31.5	30,014,702	-6.4
2010년	8703	6,551,090	15.0	32,069,924	32.9

자료원: USITC

○ 한국 자동차 수출 증가세, 일본차는 하락세(표-4)

* 2011~2014년 한국 RCA지수 증가세, 일본은 하락세

○ 그러나 엔저 장기화의 여파로 최근 일본기업 실적 호조, 한국기업 상황 악화

* '14.4~'15.3월 도요타 사상 최대 실적(2조 1700억 엔), 닛산, 혼다 등도 순이익 증가

* '15.5월 시장점유율 현대차 대폭 감소(4.7→3.9%), 기아차 소폭 상승(3.7→3.8%)

□ [전망] TPP, '16년 한국차 관세철폐와 현지화로 영향 제한적

○ 일본, TPP로 인한 자동차 관세철폐효과로 수출 증가 기대

○ 그러나 이미 한·일 완성차 업체는 현지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, 한·미 FTA 협약으로 상쇄될 수 있어 관세철폐 효과 제한적

* 현대차(앨러배마), 기아차(조지아)에 현지공장 운영, 연내 추가 착공계획 있어

* '16.1.1. 한국 자동차 미국 수입관세 철폐(2.5%→0%)

□ [대응방안] 비용절감노력과 함께 현지기업과 기술협력 필요

- 단기적으로는 엔저 현상에 대응하여 비용절감 필요
 - * 현대차, '15년 경상비 30% 절감안 발표
- 장기적으로 디자인, 기술력 강화를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가 요구됨
- 무인자동차,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 관련, 구글 등 현지 기업과의 기술협력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시점
 - * 연료전지차 기술은 선두권이나, 무인자동차 기술은 美에 5년 이상 뒤쳐져

《 Japanese Empire Strikes Back 》

◇ 멕시코, NAFTA, TPP, EPA 교집합으로 일본차 생산기지 부각

- 멕시코,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주요 수출거점으로 부상
 - * WSJ, 최근 일본 기업의 멕시코 내 생산시설을 통한 미국 수출 증가 보도
- NAFTA에 따른 멕시코의 장점 ... TPP로 업그레이드 가능
 - 일본-멕시코 EPA로 멕시코의 대일본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
 - NAFTA로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 가능
 - * 단, NAFTA 자동차 원산지기준은 RVC(역내부가가치 기준) 62.5%로 상당부분 북미산 부품 사용 필요(미국 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)
 - TPP 타결시, 일본-멕시코-미국이 모두 역내로 인정되어 일본기업의 멕시코 생산시설에서 일본산 자동차부품 활용 가능

◇ 일본자동차 공업회의 Made in America, 친환경 강조 전략

- 일본자동차공업회(JAMA)는 미국 16개주에서 26개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제조사의 자동차가 일본産이 아닌 미국産임을 강조하는 홍보를 강화
- 미국인 136만 명에 대한 고용창출, 對美 400억 달러 투자, 미국産 일본 자동차 39만 대 대외수출 등을 강조하여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강조
- 이외에도 JAMA는 미국에서 현재 운용 중인 대체연료 차량 중 81%가 일본 업체 차량임을 강조하며 일본 자동차의 친환경성과 연비 홍보

나. [자동차 부품] TPP·엔저 이중고,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응

□ [현황] 잘나가는 한국 자동차 부품, 주춤하는 일본 기업

<표-1> '10-14년 한-일 자동차부품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8708	6,045,724	6.3	8,274,234	-5.9
2013년	8708	5,685,843	8.0	8,792,142	-13.6
2012년	8708	5,266,392	12.2	10,171,740	26.4
2011년	8708	4,694,277	20.1	8,046,659	11.1
2010년	8708	3,910,053	95.8	7,239,722	39.0

자료원: USITC

- 한·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액 증가, 일본은 감소(표-1)
- 한국 완성차업체의 미국 현지 생산 증가, 브랜드파워·기술력 제고로 우리 기업의 대미 부품수출 증가세 지속
- 반면 일본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부품 수출 감소세

□ [전망] 엔저와 TPP 효과 겹치면 對美 수출 전망 악화

- 엔저현상 지속으로 가격경쟁력 하락,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 우려
- TPP 협상과정에서 자동차 부품관세에 대한 미·일 입장차 있으나, 양허안 타결될 경우 우리업체 피해 예상

□ [대응방안] 가격경쟁 불가피, 현지생산 늘리고 일본기업에 수출도

- TPP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우리나라 제품으로 자동차 부품 지목
* 자동차산업협회, 통상산업포럼 업종별 분과회의('15.5.12)
- 엔저현상과 TPP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기업과 가격경쟁 불가피, 현지생산전략으로 TPP 영향 극복할 필요 있음
- 대기업인 완성차업체에 비해 아직 국내 중소·중견 부품기업의 현지생산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

- 대·중소기업 동반 현지진출 필요
 - '14년 KOTRA-Ford간 MOU 체결 효과 제고 및 한국 부품 진출 수요 창출을 위한 'Korea Autoparts Plaza with Ford' 개최
 - 북미 Autoparts Partnering 행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중소 동반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
- 브랜드파워 및 기술력 제고에 대한 정부/KOTRA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엔저, 해외 생산비용 증가로 일본기업 유턴, 일본기업 대상 수출도 고려해야
 - * 도요타 캠리, 2017년형 모델 일부 일본 내 생산 계획

《 현지 자동차 부품업체 인터뷰 》

◇ K사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반응) TPP 체결시 자동차용 고성능 모터 판매에 타격 예상
- (대응방안) TPP 가입국 현지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계획
- TPP의 규모가 매우 크고, 일본 등 한국과 아직 FTA가 성사되지 않은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한국이 가입한다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

◇ S사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반응) TPP 체결시 자동차용 베어링 판매에 타격 예상
- (대응방안) 한·미 FTA로 낮아지는 관세(10년간 단계적 철폐)를 즉시 가격에 반영하여 대응, 북미(멕시코) 현지 생산으로 가격경쟁력 확보
- TPP 관련 세미나 개최, TPP와 FTA의 차이점, 대응방안 공유가 필요

다. [기계] TPP·엔저 악재, 선택과 집중으로 극복

□ [현황] FTA, 경기 호황으로 수출 증가세이나, 여전히 일본에 열세

-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증가세 지속중이나, 절대적 측면에서 열세(표-1)
 - * 일반기계 2014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한(3.55%)vs일(9.10%)
- 원자로 부분품 등에서 일본에 비교우위, 산업용 로봇 등에선 열세(표-2)

<표-1> '10-14년 한-일 기계류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84	12,089,208	10.9	30,973,266	1.4
2013년	84	10,902,022	5.3	30,537,864	-10.3
2012년	84	10,355,233	4.5	34,059,012	8.9
2011년	84	9,913,875	12.7	31,269,157	25.6
2010년	84	8,798,695	40.4	24,887,696	27.6

자료원: USITC

<표-2> '14년 한-일 주요 미국 기계제품 점유율 변화

(단위: %)

제품명	점유율 변화		제품명	점유율 변화	
	한	일		한	일
다이소 탭핑기	16.4→3.4	19.5→49.8	원자로 부분품	31.6→62.5	36.9→13.6
산업용 로봇	8.6→4.0	18.1→23.2			

자료원: 무역협회

□ [전망] 가격요소는 악재, 수요요인은 호재

- 엔저현상과 TPP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는 일본기업과의 경쟁에 악재
-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(reshoring)으로 일반기계 수출 수요 증가는 호재
 - * 미국의 올해 건설기계와 산업용 기계 투자액이 2006년 최대치를 초과할 전망
 - * 미국 '15.5월 제조업 PMI는 54.0 (PMI 50 이상이면 확장기조)

□ [대응방안] 수요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

- 업종에 따라 기계수요 편차 있어
 - *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미국 내 농업·광업·에너지 관련 기계 수요 감소
 - * 공작기계, 원동기 및 펌프, 건설기계 등의 수출 증가 예상(한국기계산업진흥회)
- 미국 내 지역별, 산업별 수요 파악을 통한 세부 진출전략 마련해야

라. [전기·전자] 일본가전 약세, 전략 변경으로 새로운 경쟁에 대비

□ [현황] 일본 가전의 몰락, 한국도 최근 휴대폰 등 일부 제품 부진

- 디스플레이,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RCA, 일본에 비교우위
 - * 가전·전자제품 2014년 RCA지표 한(1.562)vs일(0.579)
- 전기기기의 경우 일본에 비교열위
 - * 전기기기 2014년 RCA지표 한(1.29)vs일(1.49)
- 파나소닉, 소니 등 일본 가전업체 북미시장에서 고전
 - * 파나소닉 멕시코 공장 철수, 소니 스마트폰·TV 사업 축소
- 최근 컴퓨터주변기기(SSD) 수출 증가/휴대폰 수출 부진

<표-1> '10-14년 한-일 전기·전자제품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85	15,483,983	5.4	17,288,327	-6.2
2013년	85	14,692,964	15.1	18,424,615	-8.1
2012년	85	12,769,277	-20.6	20,056,142	9.7
2011년	85	16,080,432	5.3	18,288,003	-0.4
2010년	85	15,266,919	7.2	18,353,459	19.4

자료원: USITC

□ [전망] 관세영향 제한적이나 일부 고가제품에서 일본과 경쟁 예상

- TPP에 따른 일본제품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 제한적
 - 한·미·일 모두 ITA 가입국으로 휴대폰 등 주력 수출상품이 이미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수입되고 있어 TPP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
- 2015년 미국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기대
 - * 미 소비자가전협회(CEA)는 '15년 가전제품 판매수익이 전년 대비 3% 증가한 2,232억 달러를 기록하며, 역대 최고액 갱신할 것으로 전망
 - * 4K UHD TV, 3D 프린터, 무인시스템, 스마트시계, 스마트안경, IP 카메라, 태양광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·신기술 제품은 '14년 대비 2배 성장한 11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단, 프리미엄 가전의 경우 일본과의 가격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

□ [대응방안] 샌드위치 피하기 위한 전략변화와 생산 효율화 필요

- 주력 수출산업인 휴대폰, 애플·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전,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할 때
 - * 2014년 미국 휴대폰 시장 점유율, 애플이 50% 차지, 한국제품 점유율 감소
- 일본가전업체와의 가격경쟁 대비, 베트남, 말레이시아 등 TPP가입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전략 효과적
 - 기존 일본산 부품을 수입하던 조달선을 동남아 현지 생산으로 전환, 조달 일원화로 생산 비용 절감 노려야

《수출효자 반도체, TPP 영향은?》

◇ 반도체 산업 전망 및 대응방안

- (현황) 미국 경기 호황, 신제품 관련 수출 증가
 - 미국 경기 호황과 IT 신상품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 증가
 - * '15.4월 메모리/시스템 반도체 동반호조로 작년동월대비 6.9% 상승한 51억 달러 기록
 - 감광성 반도체 등에서 선전, 반도체 디바이스에선 열세

<표-1> '14년 한-일 반도체 제품 점유율 변화

(단위: %)

제품명	점유율 변화		제품명	점유율변화	
	한	일		한	일
반도체 디바이스	2.0→0.1	12.1→14.6	감광성 반도체	1.1→4.8	16.9→9.3

자료원: 무역협회

- (전망) 엔저는 오히려 호재, TPP 영향 미미해
 - 엔저현상은 반도체 원료, 디바이스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우리 업체에게 호재
 - ITA에 의해 일부 품목 및 반덤핑 관세를 제외하고 무관세, TPP에 따른 영향 제한적
- (대응방안) IT 트렌드에 따른 반도체 수요 변화 포착해야
 - 최근 사물인터넷, 무인자동차 등 새로운 IT 제품 등장
 - 그에 따른 제품별 수요도 급변하여 이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함

마. [철강·철강제품] TPP 영향 제한적, 반덤핑 제소 관련 정부 지원 필요

□ [현황] 품질·가격경쟁력 강한 우리제품, 일본과 경합도 낮아

- 우리 철강제품의 RCA 일본에 비해 비교우위
* 철강 2014년 RCA지표 한(2.534)vs일(0.948)
-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유정용 강관(표-3), 석도원판(주석도금강판, 일명 블랙 플레이트) 등에서 일본제품과의 경합도 낮아

<표-1> '10-14년 한-일 철강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72	2,087,582	49.0	1,707,268	10.0
2013년	72	1,401,518	-11.5	1,551,857	-7.8
2012년	72	1,583,654	13.8	1,683,687	12.9
2011년	72	1,391,331	55.7	1,490,925	40.4
2010년	72	893,487	25.2	1,062,162	48.0

자료원: USITC

<표-2> '10-14년 한-일 철강제품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73	3,317,925	28.5	2,184,174	-4.0
2013년	73	2,582,284	-6.2	2,276,045	-21.3
2012년	73	2,753,238	28.4	2,892,847	27.5
2011년	73	2,144,846	38.9	2,269,289	17.5
2010년	73	1,544,020	45.0	1,931,946	3.6

자료원: USITC

<표-3> '10-14년 한-일 유정용 강관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7306	1,873,507	37.5	89,824	-41.3
2013년	7306	1,362,404	-9.2	153,106	-30.4
2012년	7306	1,499,745	20.7	219,886	27.9
2011년	7306	1,242,603	53.3	171,913	78.4
2010년	7306	810,546	150.0	96,339	-15.3

자료원: USITC

□ [전망] TPP영향은 제한적, 일본과의 가격경쟁 가능성 낮아

- TPP로 인해 우리 기업에 큰 타격 없을 듯
 - * 주력제품인 유정용 강관, 석도원판(BP)에서 일본에 경쟁력 앞서
- TPP로 인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위협요인 역시 낮은 수준
 - * 일본제품의 가격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, TPP로 인한 관세 마진을 낮아

□ [대응방안] 정부차원의 반덤핑 제소문제 해결 필요

- 일본기업보다 美 철강업체의 반덤핑 제소가 더 큰 위협요인
- 최근, 미 상원을 통과한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(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)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회피에 대한 조사 및 판정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
 - * 국제무역위원회(ITC)가 직접 조사 후 판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
 - * 수익성, 총 수익 및 매출, 채무상환 능력, 자산수익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, 미국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도 수정해 수입제품에 대한 비중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규정
- 국내 업체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더욱 늘어날 것
 - * '15.6.3 미 6개 철강업체, 한국, 중국, 인도, 대만, 이탈리아 반덤핑 제소
- 이에 따른 정부/기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
 - * 정부차원의 조사·법률자문·정보 지원 필요

《 현지 철강업체 인터뷰 》

◇ S사(유정용 장관)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전망) 현재 TPP 회원국인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있어 현지에서 소싱이 가능하며 한국산 중소기업 제품들도 취급하고 있어 TPP 체결로 인한 별다른 위협요소가 없음. 오히려 미 정부의 반덤핑 관세가 더 위협적
- (대응방안) 미국시장에서 일본산 제품과의 경쟁구도가 없어 특별한 대응 전략이 필요 없음
- 현재 한국산 유정용 강관 제품에 미 정부의 반덤핑 규제관세가 부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부족함. 반덤핑 조사가 시작될 때 이에 반박하는 한국 기업들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

◇ P사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반응) 본사 무역통상팀이 조사하고 있으나, TPP로 인한 미국판매 일본 제품의 관세 마진율은 낮은 수준으로 큰 지장 없을 것. 일본 제품의 수출가격이 타국 제품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미국 시장 점유율도 낮아 큰 위협이 되지 않음. 반덤핑 제소 문제가 더 중요함.
- (대응방안)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은 한계가 있음. 주력상품인 자동차용 철강/에너지 강재/블랙플레이트(BP)이며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제품들이므로 국가와 KOTRA는 반덤핑 제소 제품에 해당 품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부차원의 협조를 바람.
- 현재 자동차용 제품과 블랙플레이트를 수출하고 있으며 도금강판(GI)과 콜드롤(CR)은 비교적 소수 납품중임. 반덤핑 제소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주로 GI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GI 제품을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과 대만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
- 철강산업의 경우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차원의 개입이 요구됨. 최근 반덤핑 제소 또한 미 상원, 하원의원들이 직·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민간으로부터의 로비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

바. [석유·석유화학] 시장 침체 우려, 경쟁보다 한·일 협력으로 극복

□ [현황] 유가하락, 수요감소로 한·일 양국 모두 어려움 겪는 중

- 셰일가스, 석탄화학 등 대체연료 등장과 OPEC의 증산계획으로 유가하락
-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석유제품시장 수입수요 감소
 - * “신흥국 자급률이 높아지고 기존 수출국가들의 물량이 트레이딩 시장에 몰리면서 제품 가격과 마진율이 하락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”(S사 인터뷰)

<표-1> '10-14년 한-일 석유·역청유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2710	3,059,406	-12.7	437,680	-24.3
2013년	2710	3,505,949	21.1	578,268	13.0
2012년	2710	2,894,913	11.1	511,719	19.3
2011년	2710	2,605,533	-24.7	428,792	-0.9
2010년	2710	3,459,765	86.2	432,486	103.1

자료원: USITC

<표-2> '10-14년 한-일 플라스틱 제품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39	1,830,386	10.1	2,240,333	3.5
2013년	39	1,661,811	13.5	2,163,636	-6.7
2012년	39	1,464,624	15.7	2,318,292	9.9
2011년	39	1,265,623	18.8	2,109,092	4.0
2010년	39	1,065,290	31.7	2,027,069	38.1

자료원: USITC

<표-3> '10-14년 한-일 고무제품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40	1,828,289	0.3	2,420,697	-3.1
2013년	40	1,822,456	-15.5	2,498,878	-8.4
2012년	40	2,155,950	8.4	2,728,824	2.2
2011년	40	1,989,539	26.5	2,670,530	10.4
2010년	40	1,572,522	79.9	2,418,302	38.5

자료원: USITC

□ [전망] TPP 영향 미미하나 일부제품에서 일본 수혜 예상

- 한·일 기업 모두 TPP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 - * 한국 에너지·화학업체, 일본 종합화학업체 모두 TPP 영향 미미할 것으로 예상
- 다만 일부 제품의 경우 TPP로 인한 관세효과로 일본기업 수혜 전망
 - * 제트유·등유는 관세혜택 큰 제품(명진호, 무역협회 수석연구원)

□ [대응방안]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공동 위기 극복

- 석유제품시장 침체 극복과 경쟁으로 인한 비용 감소를 위해 일본기업과의 M&A, 합작 등 협업전략 필요
 - * SK종합화학(한)-JX에너지(일) 1조원 규모 합작공장 설립(2014)
- 현지 직거래, 장기계약 등 선제적 전략으로 가격 영향 극복할 필요 있음
- KOTRA를 통한 유통 Infra 구축 및 정보 지원 필요

《 현지 석유화학기업 인터뷰 》

◇ S사(가스)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반응) TPP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. 특별히 타격을 받을 제품 없음.
- (대응방안) 특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상황은 아니며, 미 현지에서 가스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이 예상 되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

◇ K사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반응) 석유수지 제품의 경우, TPP로 관세 낮아지면 일본기업들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일부 판매선 전환할 것
- (대응방안) 미국 현지대리점 판매 중 일부거래선을 직거래로 돌려서 판매 비용 절감, 장기계약 통한 판매물량 선확보, 일본의 미국 수입자료(B/L) 확보 통해 일본발 미국 수출 루트 파악 등으로 대응
- KOTRA 통한 석유화학 관련 지상사 정보·물류 네트워크 구축 필요

사. [섬유·의류] 동남아 현지생산으로 TPP 체결을 호재로

□ [현황] 한·일 양국 동남아 현지생산, 섬유산업 첨단화 추진

- 한·미 FTA 효과로 인해 섬유수출 증가세(표-1~4)
 - * 섬유 관세, 품목기준 발효 즉시 61%, 10년 내 전부 철폐
- 한·일 기업 모두 베트남·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 추진
 - * 이토추 상사(일) 베트남 현지 생산, 미얀마·캄보디아·방글라데시 등으로 확대
- 양국 화학섬유, 첨단·고부가가치 산업화 진행 중
 - * 스판덱스(효성), 아라미드(코오롱)등 대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
 - * 도레이(일) 말레이시아 대표,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략으로 전환

□ [전망] TPP 타결은 오히려 한·일 양국에 이득

- 일본제품과 경합도 낮아 TPP·엔저 영향 제한적
 - *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은 고가 위주로 우리상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TPP에 따른 피해 생각보다 작을 것 (LA·뉴욕 무역관)
- TPP로 섬유 관세 낮아지면, 이미 베트남 등에서 생산중인 기업들의 경우 오히려 가격경쟁력 강화될 것
- 단, 미국에서 섬유 원사규정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, 원산지 규정 협상 내용에 따라 희비 갈릴 듯

□ [대응방안]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응, 정부지원 필요

- 베트남 등 TPP 가입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전략 필요
 - * 한-베트남 FTA, TPP 체결로 우리기업의 섬유 생산기지로 부각
- 상대적으로 자금·인력이 부족한 우리 섬유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
 - * KOTRA 통한 전시회, 상담회 개최 지원, 컨설팅 인력 지원 필요
- K-Fashion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트렌드를 이용한 마케팅
- 우리 섬유업계의 신기술 공동개발 등 지속적인 R&D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필요

<표-1> '10-14년 한-일 인조장섬유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54	186,851	-1.2	93,869	9.2
2013년	54	189,168	5.8	85,962	-3.4
2012년	54	178,750	17.3	88,998	3.2
2011년	54	152,432	14.8	86,219	14.6
2010년	54	132,804	4.7	75,238	22.1

자료원: USITC

<표-2> '10-14년 한-일 인조단섬유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55	199,356	4.2	120,840	15.7
2013년	55	191,264	-1.3	104,462	-19.6
2012년	55	193,687	29.5	129,999	3.4
2011년	55	149,609	-6.1	125,720	18.2
2010년	55	159,365	33.2	106,336	14.6

자료원: USITC

<표-3> '10-14년 한-일 방직용 섬유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59	141,892	7.7	153,249	-4.6
2013년	59	131,693	-13.8	160,664	-1.6
2012년	59	152,822	13.0	163,272	11.4
2011년	59	135,286	19.3	146,610	-3.7
2010년	59	113,447	11.2	152,300	48.5

자료원: USITC

<표-4> '10-14년 한-일 메리야스/뜨개질 편물 대미 수출 현황

(단위: 천달러, %)

구분	hs코드	한국		일본	
		수출	증감률	수출	증감률
2014년	60	177,611	9.0	18,140	7.2
2013년	60	162,985	-3.2	16,921	-18.0
2012년	60	168,396	-1.1	20,645	7.2
2011년	60	170,208	15.4	19,253	-12.0
2010년	60	147,530	-2.1	21,875	-1.6

자료원: USITC

《 현지 섬유 업체 인터뷰 》

◇ K사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반응) 한미FTA 원산지규정이 까다로워서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TPP 타결되면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업체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오히려 긍정적
- (대응방안) 일본제품은 주로 고가 시장을 타깃으로 하므로 중간가격대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상품과 경합도 낮아 별도의 대책은 고려하지 않음.
- KOTRA 등 정부기관에서 현지 전시회 관련 재정 지원 확대 바람

◇ A사의 반응 및 대응방안

- (반응) 그동안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TPP 타결되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사 제품의 미국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.
- TPP 규정이 한·미 FTA의 원산지 규정처럼 엄격하지 않다면 중국 등 해외 원사를 사용해 생산하는 제품도 가격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- (대응방안) 섬유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본에서 생산할 경우 단가가 비싸 일본 업체들도 중국, 베트남 등에서 제품 생산함. 단 TPP 타결로 일본 제품의 관세가 낮아져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으면, TPP 관세혜택 지역의 생산을 늘려 대응
- 인력지원과 자금지원이 필요함
 - TPP 관련 관세 컨설팅 인력을 늘리고 TPP 관련 정보제공 및 관세 컨설팅 프로그램을 상시 운용 바람
 - 컨설팅을 받을 경우, 해당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방안이 필요

◇ M사의 반응

- 그동안 FTA 혜택을 받던 국내 일부 섬유/의류기업의 경우, TPP로 인해 일본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

2. 시사점

가. A.C.E 전략

- TPP 타결 시, 일본과 경쟁이 심화되고 한·미 FTA의 효과도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능동적인 전략 필요
- 미국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3가지 전략 제시
 - (1) **A**dvantage: 우위 산업을 바탕으로 한 미국 진출 확대
 - (2) **C**reativity: 신성장산업을 공략할수 있는 창조적 기술 및 지식 확보
 - (3) **E**thnic: 미국에 떠오르는 중산층, 라틴계의 한국 문화 친화도를 활용

□ **[Advantage]** 우위 산업을 바탕으로 한 대외 진출

- ‘Cool Japan’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대외 진출 전략으로, 대외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게임,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을 강화시키는 전략
 - * JETRO는 해당 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컨설팅업체인 AT Kearney를 고용
- 한국도 미국시장에서 강점을 보이는 IT 기기, 온라인게임, 화장품 등을 바탕으로 한 전시회 등 행사를 통해 국산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다른 산업과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해야
 - * CJ-KOTRA, 대표적 한국문화행사인 K-CON에서 한국제품 소개

《 Cool Japan 의 한계와 타산지석 》

- 미국 시사 월간지인 The Atlantic은 일본 정부 주도의 소프트파워 (Soft Power) 강화 전략이 일본 문화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자국민 만족을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분석
- ‘Cool Japan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국민의 만족 여부가 아닌 해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며, 정부주도의 문화 사업 지원이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인식부터 바뀌야 한다고 제언
- ‘한국産’, ‘한국의 것’이라는 자기만족형 홍보를 지양하고 현지 특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 또는 콘텐츠의 글로벌 보편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

□ **[Creativity]** 지식기반산업 부흥을 위한 창조적 기술 확보

-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R&D 집약형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확대 및 혁신기업 간 파트너십 모색이 필요
- 일본과 중국의 IT업체들이 미국 진출 활로 확보와 신기술 확보를 위해 美 혁신기술 기반형 스타트업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, 향후 혁신 기술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
- IT, 바이오·의료산업과 같이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장기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한 산업의 미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업 및 M&A를 적극 추진
- 대미 수출 품목 다각화를 통해 TPP 타결로 인한 한·미 FTA 상쇄효과에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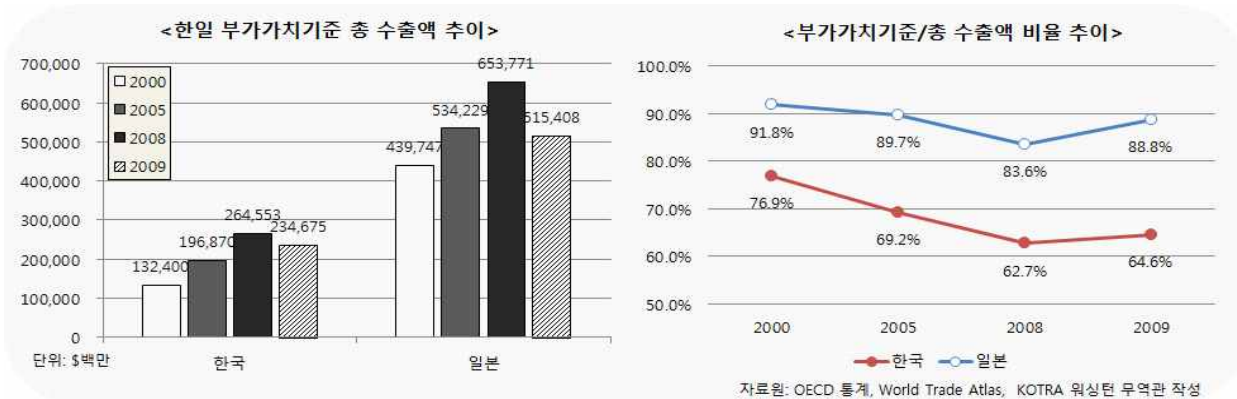
□ **[Ethnic]** 변화하는 미국의 인종 구조에 주목해 신흥 중산층을 공략

- 히스패닉,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인구 급증에 따라 성장 중인 소수 인종의 구매력 활용 방안 마련
- 특히, 히스패닉(라틴계) 인구가 새로운 중산층으로 떠오르면서 라틴계 내 인지도가 높은 한류 문화 등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이 필요
- 유니비존(Univision)과 같은 미국 내 스페인어 TV 채널 등을 이용한 한국産 제품에 대한 판촉을 전개함과 동시에, 주력 품목에 대한 스페인어 설명서 동봉 및 라벨링 부착을 장려
- 또한, 유행에 민감한 힙스터* 세대의 기존 제품 및 음식 등에 대한 거부감 및 독창성 강조가 새로운 문화 코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전략이 필요
 - * 힙스터: 뉴욕, 샌프란시스코,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며, 주류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 독립적인 2,30대를 지칭
 - * 허핑턴포스트紙는 공부차, 푸드트럭 음식 등과 함께 김치와 김치 타코를 힙스터 세대를 대표하는 22가지 음식 중에 하나로 선정
- 기존 문화진출사업의 실패 사례를 검토하여 ‘우리가 좋아하는 것’, ‘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’이 아닌 ‘모두가 좋아할만한 공통분모’ 또는 ‘특정 세대, 인종이 좋아할만한 콘텐츠’를 발굴 및 확보

나. 고부가가치 전략

□ [부가가치] 국내창출 부가가치 높여 '명실상부' 무역 강국으로 거듭

- 생산 네트워크의 세계화로 전통적인 수출입통계의 실효성 저하
 - 제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글로벌가치사슬(GVC)을 통해 세계화되면서 최종재의 수출구도 만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수출입통계의 실효성 저하
 - OECD와 WTO의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(Trade in Value Added, TiVA)에 따르면 '09년 한국의 부가가치기준 총 수출액은 약 2,347억 달러로 전통적인 무역통계의 총 수출액에 약 65% 수준
 - 일본은 '09년 부가가치기준 총 수출액이 5,754억 달러로 전통적인 무역통계의 총 수출액의 약 89%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유지



- 총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기준 비율은 세계적으로 GVC 활성화에 따라 낮아지고 있는 추세*이지만 국가의 GDP 수준과 그 비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
 - * GVC 활성화로 부품 및 원자재의 수입을 통한 최종재 수출이 늘어나 전통적 방식의 수출 통계액이 부가가치 기준보다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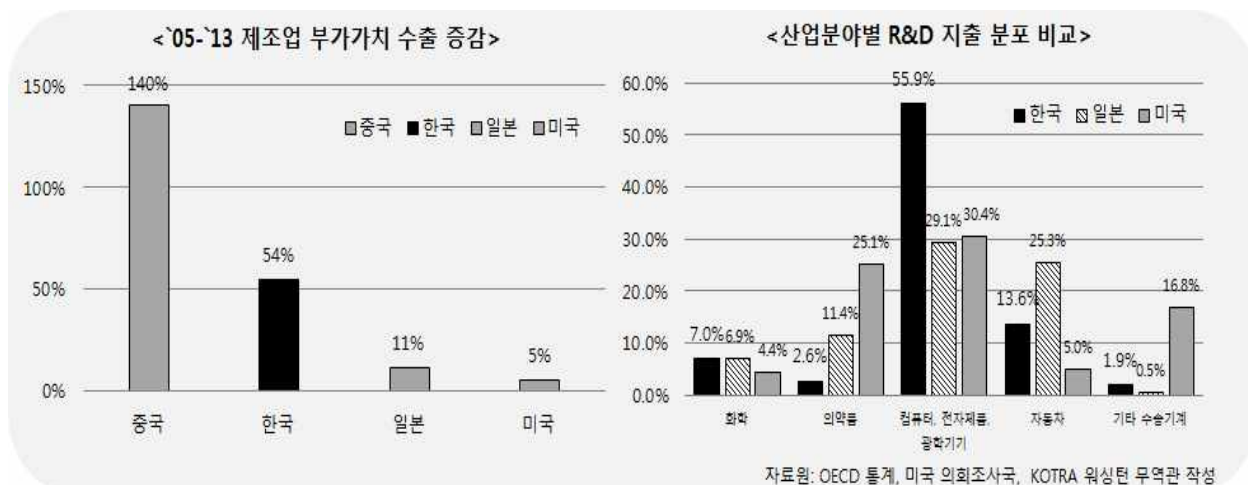
◇ 애플사의 아이폰3로 본 부가가치기준 무역통계

- 전통적 방식: '09년 미국은 약 1억 달러의 아이폰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했으며 약 20억 달러의 아이폰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미국의 대중국 아이폰 무역적자는 약 19억 달러
- 부가가치 기준: 총 비용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.6%에 불과하고 기타 부품 제조에 한국(12.8%), 일본(33.9%), 독일(16.8%), 미국(6%)이 참여해 실제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국 아이폰 무역적자는 0.7억 달러에 불과

자료원: OECD, IADB

□ [핵심기술] GVC에서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 기반의 수출

- 제품의 핵심(core) 기술이 생산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
- ICT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은 물론 농식품, 기계류 등 산업 전반의 지식재산, 특허 등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화 필요
- 효율적인 R&D 진흥 정책으로 다방면의 R&D 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가속화
- 세계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현재 우리의 강점인 IT 및 전자제품을 비롯해 타분야의 R&D 활성화 노력



□ [FTA]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의 부가가치 활용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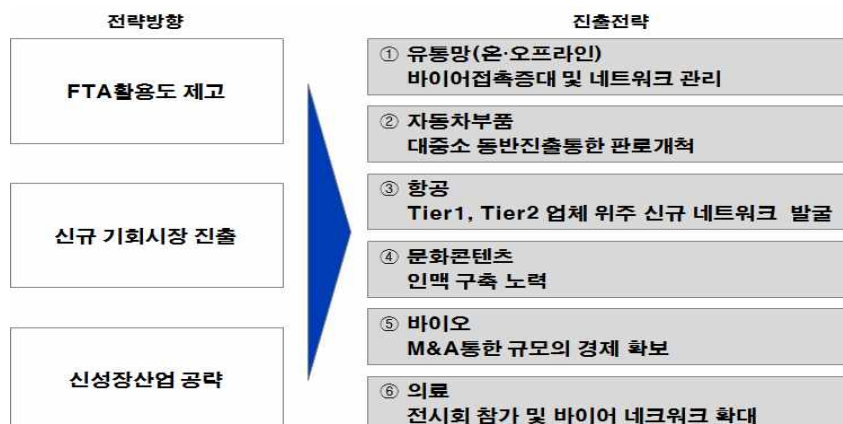
- 일본이 TPP를 비롯해, EU와의 EPA를 통해 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수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, 한·미 FTA, 한-EU FTA 등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고 FTA를 통한 GVC를 활용도를 높여 부가가치 수출에 기여
- TPP가 타결될 경우, TPP에 따른 관세양허 및 규제/기준 통합 등 합의 내용을 파악하고 현지 산업계 반응 조사를 통해 한국의 정식 가입 전까지 대응방안을 모색해 무역전환 최소화

《 시사점 》

◇ TPP와 일본, 그리고 한국

- 우리기업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FTA 효과를 활용해 미국시장에서 선전
- 그러나 최근 일본이 엔저 장기화에 따른 실적증가로 축적한 자본을 투자로 전환하여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
- 일본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만큼, TPP가 타결된다면 미국시장 내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전망
- 한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, 기계 등의 품목 타격 우려

◇ KOTRA의 미국시장 진출전략



- **(FTA 활용도 제고)** 자동차, 기계, 첨단 부품소재 등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해외 아웃소싱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
- **(신규 기회시장 진출)** 신규 시장 진출 사업 중점 추진
 - 품목 및 구조별 대미 온라인 유통망 진출 전략 개발
 - 히스패닉과 한류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마케팅 추진
 -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대중소 동반진출을 통한 사업 판로 개척
- **(신성장산업 공략)** 對美 투자진출 확대 추진
 - 바이오 신약 등 기술 및 판로 확보가 어려운 유망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M&A 추진

《 한국의 TPP 가입 - 득실과 가입시기 》

◇ TPP “가입비”

- TPP 가입국 중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, 칠레, 페루, 베트남 등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상당수로,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
- TPP 가입 시 농·수산물 등 취약품목 개방폭, 기존 FTA 협상내용보다 확대될 것
- TPP 가입으로 관세 인하된 일본 소재·부품 수입량 증가, 대일 역조 증가할 수 있음

◇ TPP 가입의 이득

- TPP 가입시 글로벌가치사슬(GVC) 활용 극대화
 - 역내에서 원료를싼 값에 조달, 무관세로 판매 가능
- 멕시코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진출가능성 확대
- 지식재산권·전자상거래 등 최신 무역협상에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 있음

◇ TPP에 언제 참가할 것인가?

- 이미 12개국 간 협상이 진행 중, 당장 TPP에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
- TPA 통과로 인해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, 협상이 타결된 후 득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
- 한국의 제1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TPP 참여를 놓고 고심 중
 - * 오바마, 중국의 TPP 가입 문의 사실 밝혀
- TPP 출범 시, 우리나라의 가입 시기는 중국의 참가여부와 기 체결국간 협상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



작성자

◆ 선진시장팀	권오승 과장
◆ 워싱턴무역관	김병우 대리
◆ 선진시장팀	류태현 사원



Global Market Report 15-026

TPP이후 한·일 對美 수출 전망

발 행 인 | 김재홍
발 행 처 | KOTRA
발 행 일 | 2015년 6월 26일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우 137-749)
전 화 | 02) 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 2015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

Global Market Report

www.kotra.or.kr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